

온가족이 함께 읽는

김포의 옛이야기

나루코 기획 | 김순기 글 | 이기영 그림



김포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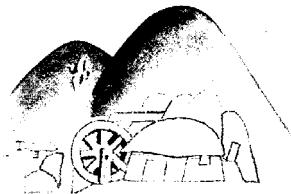
온가족이 함께 읽는

김포의 옛이야기

온가족이 함께 읽는

김포의 옛이야기

나루코 기획 | 김순기 글 | 이기영 그림



김포문화원

| 책 머리에 |

본원에서 1998년 발간한 '김포의 설화'가 시민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 재발행 된데 이어 이번에는 딱딱한 모음집 형태에서 벗어나 동화책 형태로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화원에서 발간한 서적들은 주로 연구와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포시와 관련된 설화와 전설을 동화책처럼 발행, 시민과 학생들에게 김포의 잊혀져가는 옛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읽고 기억할 수 있도록 쉬운 동화 형태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책 작업은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새로운 이야기를 찾으려고 애썼다는 점이 특이할 만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래동화책인 <조선전래동화집>(1940년 박영만 지음)에서 <예쁜이와 버들이>라는 김포의 옛이야기를 찾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익히 알려진 <우렁이색시> 이야기가 김포가 발생지이라는 점도 새삼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조한승 김포문화원장

김포시는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타 시·도에서 이주해 오는 인구들이 증가하면서 김포시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 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도 한국의 전래동화나 세계의 명작 동화 등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토색이 짙은 김포의 설화나 전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김포의 설화와 전설을 동화화 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와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교육적인 효과도 높였습니다.

본원에서는 이번에 발간하는 '온 가족이 함께 읽는 김포의 옛이야기'를 필두로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한 발 다가가는 발간사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온 가족이 함께 읽는 김포의 옛이야기'를 기획한 유영근(현 도의원) 전 사무국장과 나루코(주), 글과 그림 작가에 감사드리며, 그 외 관계자 여러 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차례 |

책 머리에 ... 4

백나공 손돌이 ... 9

열녀 애기 ... 29

우렁이색시 ... 51

중봉선생과 대감바위 ... 71

우애있는 형제 ... 89

효자 덕칠이 ... 101

예쁜이와 버들이 ... 127



- 여우재고개 ... 145
신기한 돌부처 ... 157
도선과 엄나무 ... 169
현등고개 ... 181
용허리길 ... 191
용바위 ... 203
오봉산 돌우물 ... 215
김포의 지명유래 ... 230





온가족이 함께 읽는

김포의 옛이야기

01

백나공 손돌이

백사공 손돌이

손돌목은 인천 앞바다에서 마포나루까지 올라가자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으로, 김포군 대곶면 신안리에서 강화군 광성진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곳은 평상시에는 세곡미를 운반하는 뱃길로 이용되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적을 방어하는 진지로 사용되었어요. 손돌목은 이처럼 고려시대 이래 조선시대 말까지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던 곳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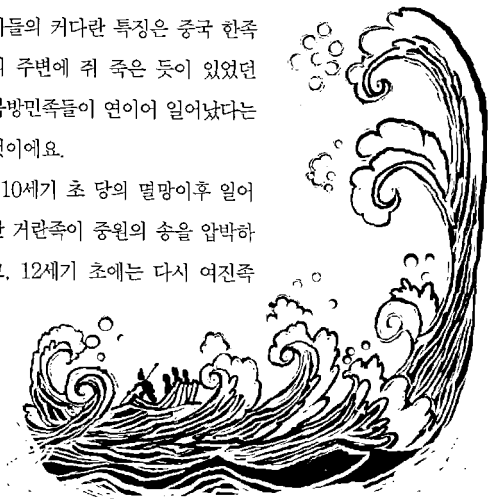
이런 손돌목에는 손돌이라는 뱃사공과 연관시켜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전설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손돌목에 부는 광풍을 따라 옛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려시대 때에 주변에 있던 국가들의 커다란 특징은 중국 한족의 주변에 쫓겨 죽은 듯이 있었던 북방민족들이 연이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10세기 초 당의 멸망이후 일어난 거란족이 중원의 송을 압박하고, 12세기 초에는 다시 여진족



이 일어나서 요, 송을 아우르는 금을 건국하여, 동아시아의 정세를 바꾸었지요. 이 같은 중국대륙의 정세 변동은 때로 직접적인 군사적 침입을 일으켜서 고려의 내정에 변화요인으로 작용하였어요.

몽고와 고려가 처음으로 접촉한 것은 고종 6년 강동성에서 거란족을 공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몽고에 쫓겨 고려에 들어와 있던 거란족은 강동성에 갇혀 있다가 고려와 몽고에 의해 전멸되었던 것이지요.

이를 계기로 몽고는 고려에 크나큰 은혜나 베푼 듯이 과도한 공물을 요구하고, 그 태도 또한 거만해서 고려인에게 분노를 샀어요. 양국 사이는 점점 벌어졌고, 이런 고려와 몽고의 심리적 마찰은 전쟁을 예고하는 폭풍전야의 시기였지요.

그러던 중 고종 12년 몽고사신 '저고여'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던 길에 압록강 부근에서 죽게 되자, 이를 계기로 몽고는 고려를 침입하기 위한 구실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몽고의 1차 침입은 고종 18년에 시작되었어요. 장군 '살리타





이 가 거느린 몽고군은
고려의 국경 군사구역
인 북쪽의 여러 성들을
공략하는데 성공하였지
요. 이후 '살리타이'가
수도 개경에 다가오게
되자, 고려는 강화를 요
청하기에 이르렀어요.

이에 몽고군은 감독관인 '다루가치'를 설치한 후 철수하였지요.
강화 이후 몽고는 더욱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고 고려에 파견된
몽고 관리의 횡포도 심해졌지요.

몽고의 제 1차 침입에 항복한 고려는 그들의 과중한 물자 요구
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몽고가 또 다시 침입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대비책을 의논하였어요.

이때 '최우'에게 나온 의견이 강화로 수도를 옮기자는 '천도론'
이었지요.

또 다시 개경에서 굴욕을 당하는 것보다는 강화로 천도하여 적군에 맞서자는 것이었어요. 당시의 집권자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할 것을 생각한 것은 비교적 이른 때였지요.

최우는 몽고의 제 1차 침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231년 12월에 승천부 부사 '윤린' 과 녹사 '박문의' 등이 강화가 피난지로 안성맞춤이라는 건의를 하자 그들을 먼저 강화로 보내 살펴보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 뒤 고려 조정이 천도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몽고군 철수 직후인 1232년 2월이었지요. 그리고 천도가 확정된 것이 6월 16일, 국왕이 강화로 옮긴 것이 7월 7일의 일이었으므로 논의에서 확정 및 시행에 이르기까지 불과 반년도 걸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강화로 수도를 옮기는 것에 대해 '최우'의 몇몇 가까운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리들은 반대했어요. 참지정사 '유승단'은 몽고에 굴복하고 받드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 천도에 반대하며 '화친론'을 들고 나왔으며, '김세충'은 강화가 아닌 여기서 힘써 싸워 적과 대결하자고 주장하며 역시 천도론에

반대했지요. 이에 '최우'는 반대파를 제거하고 7월에 강화천도를 단행하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 수도를 옮긴 곳이 강화도였을까요?

고려, 조선시대를 통해 강화도와 강화도 서쪽의 교동은 전략요충지였어요. 그 이유는 우선 임진강, 한강, 예성강 하구가 다 강화도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전근대 사회에서 수로는 철도와 고속도로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강은 우리나라 중부 내륙을 관통하며 수도 한성을 지나 남한강은 충주, 단양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즉 경기도와 황해도 그리고 충북까지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강화도이지요.

이처럼 지정학적 위치도 중요하지만,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강화도의 지형조건도 상당히 좋은걸 알 수 있어요. 우선 강화도는 섬이면서도 분지이지요. 해안가는 거의 산으로 둘러싸이고, 그 안은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요.

특히 강화도는 원래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지금 마니산으로 가다 보면 갑자기 지형이 낮아지면서 평야 한복판으

로 달리는 직선도로를 만날 수 있지요?

그 지역이 간척을 해서 두 섬을 합친 부분이에요. 그 간척사업
을 언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강화천도 시기가 아니었겠느냐는
추측도 하고 있어요. 하여간 섬 내부의 평야는 농사짓기에 좋아
서 상당한 식량생산이 가능했어요.

‘택리지’에 의하면 강화도 해안가는 질퍽한 갯벌과 늪지대였다
고 해요. 따라서 해안에 상륙해서 내륙으로 진출하려면 갯벌을
지나고, 가파른 비탈을 올라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상당한 고
생을 해야 하고, 이동속도도 느려지게 마련이었지요. 수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더할 나위가 없는 좋은 조건인 셈이었어요.
요즘에 가서 보면 늪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데, 택리지에 의하면
조선 후기에 해안가의 성을 들로 바꾸면서 기반공사를 위해 늪지
를 많이 메웠기 때문이라고 해요.

강화도의 또 하나의 장점은 예성강, 임진강, 한강 어구와 강화
도 사이의 폭이 아주 좁다는 것이에요. 특히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강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너편 월곶 지역과 강



화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양쪽에 성벽을 쌓고 포대를 건설해 놓으면 양쪽의 사격을 받으면서 좁은 협로를 올라가야 하는 지극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것이예요.

이 협로를 지나 한강으로 들어가는 수로는 물살도 빠르고, 중간에 지금의 광성보 근처의 강화와 김포군 사이에 손들목이라는 유명한 여울이 있지요. 조선시대의 배들은 물때와 바람을 맞히지 못하면 이곳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손들목 앞에서 대기해야 했어요. 이때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하면 암초에 부딪혀 많은 배가 난파하곤 했지요. 여기에 양쪽에서 포격까지 때려준다면 가히 전멸이겠지요?

그래서 조선후기까지도 강화도는 중요한 요새가 되었어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양호 사건이 모두 강화도에서 벌어진 이유가 전부 이 때문이에요.

왕의 강화 천도로 인해 온 나라가 어지러울 때 바로 여기 손들목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어영차! 어영차!”

급류가 많기로 유명한 이곳을 내 집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는 최고의 뱃사공 손들. 오늘도 부지런히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어요. 요즘처럼 분위기가 뒤숭숭 할 때는 사람들이 몰려 일거리가 평소의 곱절은 되었지요. 물론 수입도 고기 잡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짭짤했어요. 대대로 뱃사공의 집안인 손들은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덕분에 이웃들은 모두 그를 좋아했지요.

특히 작년 이 맘 때 있었던 일은 그를 이 고장 최고의 뱃사공으로 만들어 준 대사건이었지요. 비는 쉬지 않고 3일 밤, 낮을 퍼부었어요. 하늘에서 별안간 내려치는 번개로 인해 서낭당 옆에 대추나무도 ‘빠지직’ 소리와 함께 두 쪽이 나버리고 말았지요.

뒷마루에서 이 광경을 보던 손들은 말했어요.

“우리배가 무사해야 할 텐데. 큰일이군! 이런 세 찬 비는 머리털 나고 처음이야.”

“에휴, 당신도 참 딱하시오. 이 와중에 배를 걱정하는 게요? 난



뒷산이나 안 무너지면 좋겠소. 사람도 물에 떠내려갈 판에 한가하게 배나 걱정하시다니.”

손들의 아내는 못마땅한 투로 말을 했어요. 그러자 손들은 아내에게 말했지요.

“뱃사공한테 배가 목숨인 게요. 안 그렇소?”

그때였어요. ‘우르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뒷산 개벽이 무너지더니 순식간에 아랫마을 초가지붕이 뚱뚱 떠내려가고 이불과 요가 흙탕물에 뚱뚱 떠가는 것이 손들의 눈에 보였어요. 손들은 뒤도 안돌아보고 포구에 있는 배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보 어디가시는 게요? 죽고 싶어 환장을 했소? 돌아와요.”

아내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뒤로하고 손들은 세찬 비를 맞으며 배의 줄을 풀고 있었어요. 기우뚱하던 배는 출렁대며 포구를 벗어남과 동시에 소용돌이치는 시뻘건 진흙물에 떠밀려 저항 한번 못하고 요동치고 있었어요. 손들은 30년 경력의 능숙한 ‘산전수전’ 다 겪은 뱃사공. 배 가는대로 방향만 잡아주면서 떠내려 오

는 사람들을 한두 명 씩 건지기 시작했어요.

옆으로 휘휘 지나가는 나무토막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배를 몰고 가는 모습은 정말 대단한 광경이었지요. 심지어 허우적거리는 돼지들을 줄로 묶어 배에 매달아놓기까지 하는 장면은 정말 혀를 내두를 만했지요. 그 일이 있던 후에 손돌 앞에서는 어느 뱃사공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날 손돌은 아내에게 죽지 않을 만큼 잔소릴 들어야만 했어요.

손돌은 배에 태울 손님이 없을 때에는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아 장에 내다 팔기도 했어요. 기분 좋게 낮은 콧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물을 걷는 순간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만의 즐거움이었지요. 계절은 어느새 봄을 지나 녹음이 짙게 드리워진 여름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매미들은 목이 터져라 울어 재끼고 있었죠.

“여봐라! 게 아무도 없느냐? 여봐라!”

관복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손돌을 찾아 온 것은 비가 세차게 쏟아져 물이 불어있던 7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네가 이 고을에서 소문이 자자한 손돌이더냐?” 손돌은 예사 차림새가 아님을 눈치 채고 땅에 넙죽 엎드리면서 대답을 했지요. “제가 손돌이 맞습니다만 무슨 연유이신지요?”

“우리는 임금님을 모시는 대신들이니라. 지금 나라가 어떠한 상황인지는 자네도 소문을 들어 알고 있겠지. 자네는 지금부터 배를 부려 무사히 강화도로 가야하느니라, 알아들겠느냐? 이 물길은 우리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느니라. 아주 위험한 곳이니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야.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자네는 눈 감고도 갈 수 있다 하더군. 자! 그럼 포구로 가 임금님을 모실 준비를 서두르시게. 만일 무사히 목적지까지 간다면 자넨 아주 큰 상을 하사 받게 될 것이네.”

“내가 이 나라의 임금님을 모시게 될 줄이야. 이거 너무 떨리는구나. 아무쪼록 아무 탈 없이 갈 수 있게 죽을힘을 다 해야 하겠어.”

비록 전쟁통이라 그 규모가 작아지기는 했으나 어가행렬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손돌은 그 위세만으로도 주눅이 들 만했어요.

“자 이제 출발하시게.”

손들은 포구에 묶여 있던 줄을 풀었어요. 배는 스르륵 물살에 몸을 맡기면서 앞으로 나아갔지요. 노를 잡은 손들의 팔뚝엔 불끈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제 비 때문에 물이 많이 불어있구나. 물의 속도도 좀 빨라졌고 흠 최대한 조심해야겠는걸.”

슬쩍 본 임금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어요. 옆으로 지나가는 아름다운 풍경들도, 물살을 가르며 나아갈 때 가끔씩 튀어 오르는 물고기도 그저 멍한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대신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손들의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물길을 거슬러 나아간 지 한참이 흘렀을 때, 일행은 드디어 용머리처럼 바다 가운데로 불쑥 뻗어 내려간 바위인 용두돈대 밑으로 다가가고 있었지요. 그러자 배가 갑자기 요동치고, 저 앞으로 하얀 물살이 넘실대면서 삐죽삐죽 튀어나온 시키면 바위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보였어요. 일순간 왕과 신



하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지요. 그 중 한 대신이 손돌에게 나아오면서 말했어요.

“보아하니 아주 위험한 지역인 것 같으니 다른 곳으로 돌아감이 어떠한가?”

“이곳이 위험해보여도 꼭 통과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소인을 믿고 따라오시면 반드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 있고 당당한 손돌의 대답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주위를 유심히 둘러보던 손돌은 잡고 있던 노를 놓고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보다 못한 임금이 직접 나섰어요.

“지금 무얼 하는 게냐? 배가 이리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데 움직임을 멈출 생각은 하지 않고 한가하게 앉아 있다니 무엄하구나.”

손돌은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말을 했어요.

“제가 감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이곳은 몰때와 바람 때를 신중히 맞춰 나아가야 아무 탈이 없는 곳입니다. 아

직 바람 때가 아니오니 잠시만 기다리시면 무사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좋다. 한 번만 네 놈의 말을 믿어보도록 하지.”

임금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떨치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배는 앞으로 서서히 나아갔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암초는 많아지고 소용돌이가 사방에 나타났다 사라지며, 물길은 앞이 막혀 절벽이 딱하니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임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신들에게 어명을 내렸어요.

“여봐라! 저 놈을 당장 참수 시키거라. 저 놈의 하는 짓을 보아 하니 분명 적의 사주를 받은 첩자가 분명하거늘 더 이상은 두고 보지 않겠노라.”

마른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을 들은 손들은 머리를 바닥에 쓹으며 소리쳤어요.

“폐하! 그 무슨 ‘얼토당토’ 한 말씀이십니까? 저는 폐하를 무사히 목적지까지 뽕셔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는 놈입니다. 감히 제 목숨보다 소중한 나라님을 해한다니요. 소인 억울합니다.”





“닥쳐라 이놈! 내 보아하니 우리가 물길을 모른다고 점점 위험한 곳으로 내달리는 네 놈이 아무래도 이상했었던 말이다. 바른 대로 대라 이놈!”

손돌은 이 지경까지 이르자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임금을 향해 말했어요.

“폐하, 그럼 소인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 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소인 물질 한지 30년이 족히 넘었습니다. 때를 보아하니 이젠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사오니 제가 이 표주박을 물길에 놓을 터이니

따라가시면 무사히 물이 트일 것입니다. 그럼 부디 몸성히 가시
옵소서.”

손들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목이 날아가 버렸어요. 정말 허무
한 죽음이었지요. 손들의 말대로 표주박을 따라 가던 배는 아무
탈 없이 험곡을 빠져나왔어요. 그제서야 임금은 자신의 어리석음
을 타냈지요. 그리곤 왕은 손들의 충성에 감복하여 그의 무덤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 그 영혼을 위로하였다고 하네요.

사공은 억울한 죽음을 죽으며 그나마도 선심을 발휘하며
나는 원통하게 죽거니와 바가지를 물에 띄우고
그 바가지 흘러가는 것만 따라가면 왕은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혼이 바람에 들어 이 바다에 떠돌면서
해마다 그 날이 오면 분하여 운다 하네
그 왕도 간지 오래니 잊어버리고 말려버나
손들이 어진 사공 제 죽음 한 함이라
고국정한(古國精限)을 풀어도 남겠구나



음력으로 10월 20일은 손돌이 죽은 날이에요. 이날이면 으레 추위가 있다고 했지요. 그것을 억울하게 죽은 손들의 원한이 바람이 되어 추위를 몰고 온다고 해서 손돌풍이라 하고 손돌이추위라고도 했지요. 그리고 손돌풍이 불 때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일을 삼갔다고 해요. 또 어부들은 이날 바다에 나가는 것을 삼가고, 평인들은 겨울옷을 마련하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다고 해요.

손돌이추위에 대해서는 이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어요. 음력 10월 20일이 아버지 제삿날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마다 몹시 추웠어요.

마음속으로 손돌이를 생각하고 “그놈이 죽은 날은 언제나 이렇게 춥다”고 꾸념하자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네 아버지도 그놈이냐”고 했대지요. 그래서 이날 제사가 있는 사람에게 “그놈 죽은 날”이라며 놀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현재는 대곶면 주민들에 의해 진혼제를 하면서 바라춤과 나비



춤으로 손들공의 넋을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갈 길을 정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되지요. 그때마다 어떤 방법이 옳은 것인지는 결정하는 사람의 정보나 주위 사람들의 조언에 근거하지만, 결국은 결정하는 당사자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지요.

또한 어느 결정이 옳은 것인지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밝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결정을 내리는 모든 이들이 옳기를 바랄 뿐이지요.





온가족이 함께 읽는

김포의 옛이야기

02

열녀 애기

열녀 애기

애기봉(愛妓峰)에 서서 북녘 땅을 지긋이 바라보고 있어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눈앞에 보이는 산과 들은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 그대로인데, 고향땅은 세상 어디보다 멀게 느껴지지요.

고향을 잃은 어르신들은 이렇듯 애기봉에 올라 설움을 달래곤 하지요. 통일의 그날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그리운 고향땅을 밟고, 보고 싶은 얼굴 부둥켜안으며 가족들을 목 놓아 불러볼 수 있길 바라는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한이 서린 곳이 애기봉이지요.

그러나 애기봉이 간직한 사연은 따로 있어요. 360년 전에도 북녘 땅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여인이 있었어요. 병자호란으로 헤어진 사랑하는 연인인 평양감사를 기다리는 기생 애기의 슬픈 사랑



의 일화가 서린 곳으로 실향민의 한이 담긴 애기봉 망배단과는 또 다른 애뜻한 전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줘! 그렇지 조금만 더”

다급한 산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 왔어요. 문 밖에선 초조하게 아이가 무사히 나오기를 바라는 한 사내가 있었죠. 북녘에선 계속 시린 바람을 쉴 새 없이 몰아오는 겨울이었지만 사내는 하나도 춥지가 않았어요.

“임자! 조금만 힘을 내구려. 아들일까? 딸일까? 딸이면 좋겠구먼. 그래, 각시를 꼭 닮은 어여쁜 딸이면 좋겠어.”

“응애, 응애”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드디어 아이가 나왔어. 드디어.”

사내는 기뻐 소리치며 방문을 열며 들어갔어요. 산고의 고통으로 지친 아내의 옆에는 어여쁜 계집아이가 어미의 젖을 물고 있었지요.

“임자! 정말 수고했구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계집아이니

까 이름은 애기라고 지었소만.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뜻인데. 어떤가, 임자 생각은?”

사내는 핏기 없는 하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여보! 우리 애기 예쁘게 키워주셔야 해요. 약속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시면 안돼요. 불쌍한 우리 애기.”

“아니 임자, 무슨 약해 빠진 소리를 하는 거요? 우리 둘이 같이 잘 키워야지. 어서 기운 차리고 후딱 일어나시구려.”

산과 할머니가 사내의 옷소매를 밖으로 잡아끌었어요.

“이보게.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게. 아이를 낳으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오늘을 넘기질 못할 것 같으니 하늘나라에 가게 좋은 말이나 해두시게. 미안하네 그러.”

날벼락 같은 소리에 사내는 풀썩 주저앉았어요.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사내는 마음을 다잡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임자, 애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훌륭하게 키우겠소. 시집



갈 때 이까워서 어찌지? 그냥 내가 끝까지 데리고 살아 버릴까?
허허허. 당신은 아무런 걱정말구 어여 기운차려서 일어날 생각만
하구려.”

배가 불러 새근새근 잠이 든 아이 옆에 힘없이 축 늘어진 아내
의 손을 얼굴에 대고 사내는 쿡은 눈물방울만을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지요. 시린 문 틈 사이로 부는 대서운 바람소리에 울음소
리는 점점 묻혀갔어요.

조강(祖江)의 물이 얼고 풀리고를 하기 수차례. 세월은 화살처
럼 흘러갔지요.

“아부지! 이 꽃들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요?”

어디서 만들었는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꽃다발을 잘도 엮어 와
서는 아버지의 목에 걸어주네요. 한나절 봄 들판을 부지런히 뛰여
다니며 만든 결과지요.

“너무 예쁘구나. 허허허. 우리 딸내미 다 컸네 그려. 아부지한테
꽃다발도 만들어주고. 이제 시집보내도 되겠어. 허허허.”



흐뭇하게 딸을 바라보는 사내의 입가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지는 아버지랑 죽을 때 까지 같이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세요. 자! 새끼손가락 걸구 약속하세요.”

새침 토라진 딸에게 새끼손가락을 걸고는 등을 토닥거리며 사내는 말했어요.

“그래 그래야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지. 낭중에 좋은 사람 만나도 그런 소릴 할런지. 허허허. 자! 이제 아버지 나무하러 산에 댕겨 올 티이니 배고프거든 숲 안에 감자랑 옥수수랑 썬 놔오

니 꺼내 먹거라. 내 후딱 다녀오마.”

그리고 사내는 지계를 양 어깨에 메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쿵! 쿵! 쿵!’

나무패는 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지고 산 짐승들은 이리저리 숨기에 바빴지요.

“흠, 이번 장날엔 도끼날을 새로 사야겠어. 이가 너무 빠져서 나무가 잘 안패 지는 걸! 아차차! 울 팔내미 예쁜 신발도 사와야겠네 그려. 그러려면 부지런히 나무를 해야겠는걸.”

봄이 왔지만 아직 산의 밤공기는 차가웠어요. 낡아서 해진 무명옷 사이로 바람이 칼처럼 파고들었지요. 소쩍소쩍 하며 멀리서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들려 왔어요. 날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지요.

“이런, 딴 생각하다 시간이 너무 늦어 버렸네! 우물쭈물 하다가간 캄캄해져서 길을 잃어버리겠어.”

애기가 혼자 집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나무를 잔뜩 실은 지계를 짊어지고 집을 향했지요.

“아! 아버지는 왜 이리 안 오실까? 날이 이렇게 어두워졌는데, 아무리 익숙하신 산길이라도 어두워지면 위험하지 않을까? 큰 일이야! 무사히 오셔야 하는데.”

소녀는 낡아서 구멍이 이리저리 뚫린 아버지의 바지를 바느질 하며 말했어요.

‘아앗!’

하얀 무명바지 위로 바늘에 찔린 엄지손에서 나온 빨간 핏방울이 툭툭 떨어졌어요. 불길한 예감이 든 소녀는 무서웠지만 방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곤 저 동구 밖 멀리 항상 손을 흔들며 오시던 아버지가 보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으르렁, 으르렁 킁킁.’

산짐승의 울부짖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목덜미에 느껴졌어요. 등에 진 지게를 벗고 싶었지만 며칠 뒤에 열리는 장에서 사온 꽃신을 신고 기뻐할 딸내미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벗을 수가 없었지요.

“헉헉. 아! 너무 숨이 차는구나. 이놈의 다리야! 다리야! 제발



부탁할 터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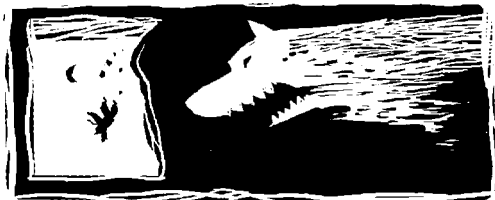
사내는 젖 먹던 힘을 다해 산길을 이리저리 뛰어 내려왔어요. 얼굴과 팔다리에는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로 여러 곳에 생채기가 났지요. 사내의 상처에서 나는 피 냄새를 맡은 늑대 무리는 더욱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사냥감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오른편 덩굴에서 우두머리로 보이는 커다란 녀석이 털을 곧추 세우고 남자를 향해 뛰어 올랐어요.

‘우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오른팔 뼈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남자는 반사적으로 왼손으로 지게 작대기를 휘둘러 녀석의 정수리를 내리 쳤어요. 녀석이 흠칫 놀라며 거리를 벌리는 순간 남자는 그만 아래쪽 산비탈로 균형을 잃으면서 한없이 미끄러졌어요.

남자는 오른팔의 통증도 죽는다는 공포도 느껴지질 않았어요. 다만 그저 혼자 남겨질 불쌍한 애기만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 뿐이었지요.

“우리 애기 불쌍해서 어찌지! 어미도 없이 큰 녀석을나마저 없



으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살기로 약속했는데.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장에서 예쁜 꽃신 사다줘야 하는데. 난 살아야 하는데. 꼭 살아야 하는데.”

그 순간 사내의 몸은 절벽 위에 작은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사내는 감각이 사라진 손가락을 움직여보려고 했어요. 그리곤 주머니에서 아내가 만들어 줬던 손수건을 만지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투두둑!’

사내의 몸을 지탱하던 작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사내는 어두운 절벽 아래로 한없이 떨어져 이내 사라졌어요.



애기는 저 멀리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사냥꾼의 등에서 내려진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요. 애기는 웃으며 나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믿기질 않았어요.

그 때 애기에게 다가오는 여인이 있었지요.

“애야! 앞으로 어떻게 살 작정이냐?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변을 당하시고 어린 몸으로 혼자 살기에는 이 세상이 녹록치는 않을 터인데?”

애기는 물끄러미 여인을 쳐다보았어요. 뭇시 나는 화려한 옥색의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두르고 가죽신에 수를 놓은 화려한 신을 신고는 화사하게 분을 칠한 여인은 꼭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어요.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어미로 생각해도 좋다. 이제부터는 맘을 모질게 먹어야 한다. 함부로 눈물을 흘려서도 아니 된다. 너는 앞으로 어려운 훈련들을 받게 될 것이야.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인연이 생겨 행복한 일만 생기게 될 것이야. 어찌

하겠느냐? 나를 따라 오겠느냐?”

애기는 행복한 일만 생긴다는 말에 여자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낯선 이를 따라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걱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의 슬픔을 잊는 쪽을 택한 것이지요. 차마 안 떨어지는 발걸음을 여자의 손에 이끌려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숨결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고개는 자꾸만 집 쪽으로 향한 채 말이지요.

아리따운 여자는 치마가 물에 젖는 것도 모른 채 연못에서 노니는 잉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애기야! 치마가 젖잖니. 자고로 여자는 몸가짐을 항상 조심해야 한단다. 알겠니?”

황급히 치마의 매무새를 고치는 여자를 향해 말했어요.

“네가 나를 따라온 지도 벌써 수년이 지나갔구나. 이젠 어엿한 여자가 다 되었어. 그동안 배운 춤과 노래, 거문고와 가야금, 서화와 시, 말씨와 행동 정말 많은 것을 훌륭히 배웠구나. 나를 따



라온 것을 후회하지는 않느냐?”

“아니에요. 큰언니! 부모 없는 저에게 언니는 부모 이상으로 잘 대해 주셨어요. 비록 판기로 매어있는 몸이지만 후회는 없어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애기는 전과 다름없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물어보았어요.

“그럼, 애기는 심성이 착하니 하늘도 반드시 소원을 들어주실 게야. 그럼 들어주고말고, 자! 내일은 평양감사가 내려오시는 날이야! 그 동안 갈고 닦은 것을 맘껏 뽐내도록 하거라. 긴장하지 말고, 알겠지? 그럼 그만 쉬거라.”

방으로 돌아온 애기는 동료들의 두런두런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내일 오시는 감사는 어떻게 생기셨을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이 그리 많대지.”

“그래, 그래 한양에 내 친구가 그러는데 자상하구 목소리도 멋있대지.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계시다네. 나도 감사나리 같은

분이랑 사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꿈 깨라, 요것아! 우리 같은 아랫것들은 그저 잔칫상에 불려나
가서 감사나리 얼굴만 보는 것도 감지덕지야.”

기생들이 떠드는 소리에 큰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그만 떠들고 자거라. 안 그럼 혼구녕 날 줄 알아라.”

애기도 잠이 안 오긴 마찬가지였어요. 침으로 나가는 자리인지
라 긴장도 되고 그 말로만 들던 감사나리가 오신다고 하니 기대
도 되고 뒤숭숭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감사가 부임하는 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 애기는
머리 기름을 윤기 있게 바르고 먹으로 눈썹을 가다듬어 반달처럼
가늘게 그리며 뺨은 복숭아처럼, 입술은 앵두처럼 빨강게 연지를
칠했어요. 그리고 얼굴엔 뽕양계 분을 발라 빛이 나고 있었지요.

애기와 기생들은 녹의홍상을 곱게 입고 나귀를 타고 풍악을 울
리며 감사를 맞이하였어요. 평양감사 나리는 들던 대로 인자하시
고 호탕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꼭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보는 듯했
어요. 애기는 풍악에 맞춰서 춤을 추다말고는 눈물이 주르륵 흘



러 내렸지요. 이 모습을 본 기생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애기야! 애기야! 너 미쳤어? 빨리 눈물 닦아. 이 경사스러운 날 눈물 흘리는 것을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넌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거야.”

이빨싸! 이 모습이 아전 한명의 눈에 띄고 말았어요.

“이런 고약 짓이 있나? 어디 감히 이 경사스러운 날에 눈물을 보이는고? 당장 저 녀를 하옥하라!”

이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던 감사는 물었어요.

“잠시 멈추시오! 내 보아하니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하오. 애야! 잔치가 파하면 내 개인적으로 사연을 들었으면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하나?”

애기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감사가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는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대답을 할 뿐이었지요.

“소녀 애기 여기까지이옵니다.”

애기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던 감사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 내렸어요.

“참으로 가녀린 몸으로 알곶은 생을 살아왔구나. 내 다시는 너의 눈에서 슬픔을 보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오늘이 지나면 나를 지아비로 생각하고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백년해로 하자꾸나.”

애기는 아버지와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끼고는 감사와의 꿈같은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준 하늘에 감사했어요. 애기는 정말 모처럼만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그러나 너무나 완벽한 행복은 화를 불러 온다고 했던가요? 조선 인조 14년(1636)에 청태종(淸太宗)은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우리나라를 쳐들어 왔어요.

청나라가 우리에게 군신(君臣)의 예를 강요한 그 치욕의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난 거지요.

평양감사는 애기와 함께 한양으로의 피란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연약한 아녀자의 몸으로 수천리 길을 가야한다니 너무 안쓰럽구나. 그러나 꼭 가야만 하는 길. 그리고 위험하니 무슨 일이 있



어도 내 곁을 떠나면 아니 된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같이 있어야
하느니라. 알았느냐? 다시는 내 너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한다고 약속하질 않았디냐.”

애기는 먼 옛날 아버지와 새끼손가락 걸며 약속하던 일이 문득
떠올랐어요.

“소녀 지아비를 두고 어딜 가겠습니까? 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맹세하지요. 꼭 나리 곁에 있겠습니다.” 하며 손가락을 깨물어 비
단손수건의 피 한 방울을 증표로 떨어뜨렸어요.

이 모습을 본 감사도 자기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손수건에 떨어
뜨리고는 손수건을 반으로 갈라선 한 장은 자신의 품에 한 장은
애기의 손에 쥐어 주었어요. 그리곤 손수건을 품속에 넣는 애기
를 꼭 안아주었어요.

비록 전쟁으로 혼란한 때였지만 둘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지
요. 어느덧 개풍군까지 다다른 일행은 안심을 하고 잠시 쉬고 있
었어요.

그때였어요.

“매복이다. 모든 병사는 감사님을 호위하라! 매복이다.”

감사와 병사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맞아서 용감하게 싸웠지만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었어요. 감사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얘기야. 저 놈들이 노리는 것은 나이니 너는 몇 안 남은 나의 장수들과 함께 먼저 강을 건너가거라. 내 반드시 살아서 너를 만나러 갈 터이니 그 때까지만 참고 견디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

감사는 말을 마치고는 붙잡을 사이도 없이 소리치며 달려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놈들아! 나 여기 있다. 잡아 볼 테면 잡아 보거라.”

한편, 얘기는 부하 장수에게 이끌려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어요.

“놓아라! 난 지아비와 같이 가야 하느니라. 이 손 제발 놓아 주거라.”

얘기는 울부짖었지만 부하장수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부하장수는 날아오는 화살을 온 몸으로 막으며 얘기를 지켰지요. 그리



고는 말안장에 애기를 묶고는 말 엉덩이를 찰싹하고 내리쳤어요.

말은 곧장 강물로 뛰어들었지요. 애기는 구사일생으로 강을 건넜어요. 감사와 생이별을 한 애기는 혼자 강을 건너 마을에 머물면서 감사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했어요.

적군에게 잡힌 감사는 군신지의(君臣之義)의 관계와 많은 공물을 바칠 것에 대해 왕을 설득하라는 적장의 요구에 대해 모진 고문에도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 나의 요구를 끝까지 들어 줄 마음이 없는 게로구나. 그러면 네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감사는 말했어요.

“비굴하게 적에게 목숨을 구걸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이 나라와 폐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그리 호락호락한 줄 아느냐?”

감사의 당당한 모습에 속으로 감탄한 적장은 말했어요.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할 말은 있느냐?”

감사는 속세의 연을 모두 끊을 결심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했어요.

“다만 맘에 걸리는 것은 사랑을 앞에 두고 더 아끼지 못하고 지금 잃은 후에야 큰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후회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다시 기회를 준다면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만약 기한을 정해야 한다면 일만년으로…”

이화우(梨花雨) 흠뻑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지도 날 생각난가.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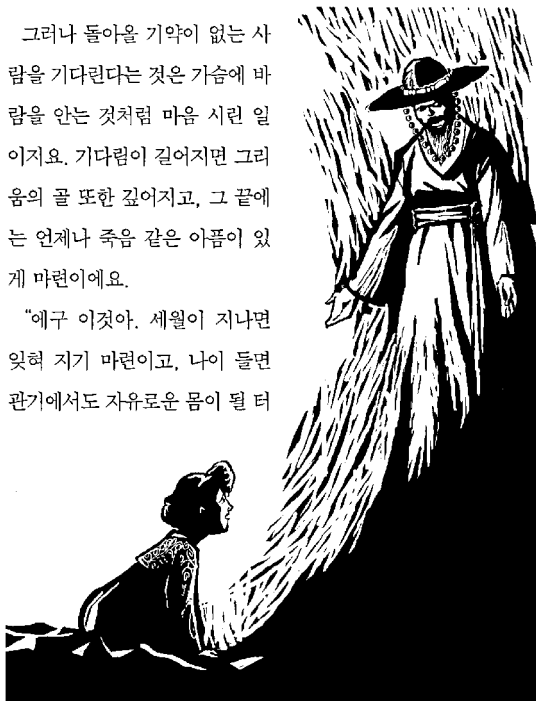
애기는 하루하루 더해지는 감사에 대한 그리움으로 날마다 산 정상에 올라 지아비가 계신 북녘을 향해 눈물로 소리치며 애타게 기다리다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갔어요.

애기에게 기다림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돌아올 것을 확신하는 기다림은 안타까우나 그래도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올 기약이 없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가슴에 바람을 안는 것처럼 마음 시린 일이지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그리움의 골 또한 깊어지고, 그 끝에는 언제나 죽음 같은 아픔이 있게 마련이에요.

“에구 이것야. 세월이 지나면 잊혀 지기 마련이고, 나이 들면 관기에서도 자유로운 몸이 될 터



인데 왜 이리 어리석게 구는 게야? 정녕 죽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야?”

애기는 말했어요.

“큰언니 나 죽으면 꼭 속갓머리 산꼭대기에 묻어줘. 냇이라도
내 고향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지아비를 바라보고 싶어. 부탁할
게.” 하며 안타까운 숨을 거두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정을 가없이 여겨 산 정상에서 장사를 지
내줬어요. 그리곤 그 산을 애기봉이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애기
의 한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는 우리 1
천만 이산가족의 한과도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애기봉은 북녘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이 한으로 맺힌 곳이에요.





온가족이 함께 읽는

김포의 옛이야기

03

우렁이새끼

우렁이새끼

만득이라는 띠꺼머리 총각은 마을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했어요. 농사는 물론이고 남의 집에 품팔이도 마다하지 않았죠. 이웃들은 성실한 만득이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정작 자기의 딸을 주는 아까워했지요. 그러다보니 만득이는 30살이 다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고 집안일마저 모조리 자기 손으로 해야만 했지요.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는 것이 너무 서글펐어요. 만득은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매일 같이 밭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농사를 지으면 무얼 하나? 수확을 하면 무얼 하나?

이 많은 곡식 그 누구와 함께 알콩달콩 먹고 살까?



이 많은 곡식 그 누구와 함께 알콩달콩 먹고 살까?

어느 추수를 앞둔 가을, 만득은 논에서 벼를 베면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세한탄을 했지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건으면 무얼 하나? 그 누구와 먹고 살까?”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랑 먹고 살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분명 청아한 여인네의 목소리가 분명한데?”

만득이는 놀라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사람이라고 한 명도 없었어요. 단지 조그만 우렁이 한 마리가 벼 잎에 매달려 있을 뿐이었지요.

만득인 우렁이를 거두어 집으로 가져와서 물독 속에 담가 두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만득이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비단 보자기에 곱게 싸인 밥상이 놓여 있는 것이었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에 고깃국, 노릇노릇하게 구

워진 조기, 맛깔나게 익은 총각김치.

“세상에나! 이게 꿈이야 생시야.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린 게야? 설마 마을 사람들이? 아니지 그럴 리 없지. 누구지? 정말 모르겠네 그러. 그나저나 일단 먹고 보는 거야.”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벗어놓은 지지분한 빨래는 하얗게 빨아서 줄에 걸려 있고 방에 군불까지 넣어 돌아오면 따뜻한 온기가 집안 구석구석 퍼져 있었죠. 자려고 누우면 정말 그 날의 피곤함이 싹 가시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하루하루가 되어갔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가고 새해가 밝았어요. 만득이는 설날과 대보름의 중간쯤 어느 날 이웃에게 새해 인사를 하러갔다가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어여쁜 처자가 자기 집 부엌에서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곤 잠시 후에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더니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더니 우렁이의 모습으로 점점 변하면서 물독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득이는 부엌으로 후다닥 뛰어 들어가 독으로 들어가려는 처자의 손목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보아하니 지체 높으신 분 같은데 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이리 정성을 다 하신단 말이요?”

처자는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말했어요.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전 볼일을 마쳤으니 이제 그만 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만득이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처자가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했던 말이에요? 또 그대는 대체 어디서 왔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하면 절대로 처자를 놓아주지 않겠소.”

젊은 처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한숨을 쉬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동해바다 용왕의 막내딸로 얼마 전에 아버님께 큰 죄를 지어서 우렁이로 모습이 변해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아버님이 제게 명하시기를 ‘살다보면 언젠가는 너를 거두어주는 사



람이 있을 터이니 그 사람을 위해서 몰래 삼 년간 좋은 일을 한다면 내 네 죄를 용서하고 다시 내 곁으로 불러들일 것이니라. 잘 알겠느냐? 단 삼 년 동안은 절대로 신분을 들켜서는 아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득이는 사연을 다 듣고도 우렁이색시를 보내기 싫었어요.

“그래도 제발 가지 마시오. 내 요즘처럼 사람답게 산 적이 없었소. 제발 나를 위해서라도 가지 마시오. 우리 그냥 같이 삽시다. 단 삼 년이라도 좋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는 만득이를 보고는 우렁이색시도 차마 우렁이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세 번의 계절이 거의 다 바뀌어갈 무렵에 도성에 사는 임금이 왕자와 신하들을 거느리고 산책을 나왔다가 우연히 만득이가 사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어요. 임금은 무척 마음씨가 고약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부전자전이라 왕자도 왕 못지않은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가마를 타고 만득이의 집 담 옆을 지나가던 왕자는 담 너



머로 머리를 곱게 빗고 있는 우렁이색시의 모습을 보고는 한 눈에 반하게 되었지요.

“아니, 이런 촌구석에 저렇게 고운 처자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누구의 아내란 말인가? 저 처자를 살며시 빼앗아 내 색시로 삼아야겠다. 아바마마, 전 저 처자를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색시로 삼아야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왕은 곰곰이 생각하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우렁이색시의 남편인 만득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마침 눈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만득이는 마을 앞에 늘어서 있는 어가행렬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다가 왕의 신하에게 잡혀 왕 앞으로 불려갔지요.

“네 놈이 저 집에 있는 색시의 지아버가 맞는고?”

왕은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 색시가 틀림없습니다.”

만득이는 납작 엎드린 채 머리로 못 들고 오들오들 떨며 말을 했어요.



“흠. 그래 네 놈이 저런 예쁜 색시를 무슨 수로 얻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너에게는 과분한 여자인고로 나와 내기를 해서 만약 내가 지면 이 고을의 땅을 다 네 놈에게 줄 터이고 네 놈이 지면 저 색시는 내가 도성으로 데리고 가 왕자와 혼인을 시키겠노라? 어떠한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만득이는 감히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속으로만 분을 삼키고 있는데 왕은 말을 이어갔지요.

“아무 말이 없는 것을 보니 내기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알고 내기를 말하겠노라. 내일 정오에 저기 보이는 산에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누가 빨리 1000그루의 나무를 심느냐가 내일 내기의 과제이니라. 간단하지 않느냐? 꺾꺾꺾. 그럼 내일 보자꾸나.”

이렇게 말하며 왕은 대신들을 이끌고 돌아갔어요.

만득인 집으로 돌아와 망연자실 한 숨만 쉬고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서방님 제 말 잘 들으세요. 내일 이른 아침에 강에 가시면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가 있을 거예요. 거북일 타고 가시다보면 도와



줄 분이 있을 거예요. 아무 걱정 하지 마세요.”

만득이는 색시가 일러준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강가로 갔어요. 정말 강가에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가 눈을 ‘끔빹끔빹’ 거리며 있는 것이었어요. 돌아선 거북이 등에 냉큼 올라탄 만득이는 속으로는 무서웠지만 우렁이색시의 말을 믿고 강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가니 ‘형형색색’의 광채가 나는 고래 등 같은 궁궐로 들어간 만득은 처음 보는 광경에 넋이 나갔지요. 만득이는 두리번거렸어요.

“이런 세상에나! 강 속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만득이에게 다가오는 이가 있었어요.

“자네가 만득이라는 사람인가?”

깜짝 놀란 만득이는 넋죽 절을 올렸어요.

“네, 소인이 만득이라고 하옵시다만.”

“나는 이 강을 다스리는 신령이라네. 동해용왕님이 자네를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시더구먼. 자 이걸 받게나.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네. 꼭 필요할 때 뚜껑을 열어보 시게.”

노인이 내준 것은 작은 호리병이었어요. 만득이는 연신 감사하며 절을 하곤 호리병을 품에 품고 집으로 왔어요.

“자, 시작하거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왕의 부하들은 나무를 어깨에 메고 산 등성으로 올라갔어요. 체격도 우람하고 힘도 센 병사들은 빠른 속도로 나무를 심어 갔지요. 그에 비해 만득이는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심어 갔어요. 사실 나무 한 그루 들기도 벅찰 뿐이었지요.

어느덧, 해는 서산에 누엿누엿 지고 왕의 병사들은 얼마 남지 않은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만득이는 늑초가 돼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물론 나무는 산더미처럼 남아있었지요.

“아, 더 이상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못하겠구나. 그렇지! 내게는 호리병이 있었어. 내 마지막 희망이군.” 하며 허리춤에 찬 호리병을 풀고선 뚜껑을 뿜하고 열었어요.



그러자 휘이익 휘이익 어디선가 일진광풍이 몰아치더니만 수 천만 마리의 새우가 호리병 속에서 튀어 나오더니 돌연 전장한 사내들로 바뀌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곤 나무를 양 어깨에 가득 들고선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나무를 심어갔어요. 그리곤 삼시간에 나무로 숲을 만들고는 다시 바람과 함께 호리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다 이긴 줄 알고 느긋하게 있던 왕은 이 모습을 보고는 까무러칠 듯 놀랐지요.

“아니 네 녀석이 무슨 술법을 부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이 대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야. 널 정오에 왕자와 말 타기 내기를 해서 승부를 정하기로 하지. 저기 보이는 강기슭에 먼저 도달한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구나. 물론 네 놈이 이기면 세 개의 고을 땅을 더 주기로 하지.”

왕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어요. 이겼다는 기쁨도 잠시 만득이는 다시 깊은 시름에 잠겼지요.

“색시, 오늘은 호리병 덕에 이겼으나 내일은 힘들 것 같구려. 난 말을 타 본 적도 없거니와 말조차 없으니 말ियो.”



우렁이색시는 빙긋이 웃었어요.

“서방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별 아침 일찍 저 앞에 보이는 산으로 가세요. 길을 따라 오르시다 보면 곰 모양의 커다란 바위 옆에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보이실 거예요. 소나무를 끼고 계곡으로 가시다 보면 안개가 자욱하고 이끼가 낀 작은 연못이 나와요. 거기서 잠시 계시면 누군가가 나타날 거예요.”

만득이가 우렁이색시가 알려준 곳에 다다르자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서 누군가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 산을 다스리는 산신령이니라. 동해용왕님의 부탁을 받고 자네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네. 자, 이 고삐와 귀리 한 줌을 받게나. 내일 일에 도움이 될 걸세.”

두 번째 결전의 날이 밝았어요.

왕자는 이미 말을 타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안색 갈기에 근육은 힘이 넘쳐 보이고 온 몸에 윤기가 자르르한 것이 예삿말이 아닌 듯 했어요. 만득이는 저고리 주머니에서 고삐를 꺼냈지요.

그리고 고삐에 있는 끈을 풀자마자 히히히힝 울부짖으며 한 마리의 조랑말이 떡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술법인가 긴장하던 왕과 신하들은 나타난 조랑말을 보자 일제히 웃으며 난리가 났어요. 만득이가 말을 살펴보니 군데군데 털은 빠지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덩치는 왕자가 타고 있는 말의 반도 안돼 보이는 것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헉, 이런 말을 타고 시합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건 분명 말을 잘 못 주신거야.”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지요.

왕자와 만득이는 나란히 출발 깃발을 기다렸어요. 깃발이 오르자마자 왕자의 백마는 나는 듯이 강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곤 능숙하게 물살을 가르며 헤엄을 치기 시작했지요.

“이랴! 이랴! 우리도 가자꾸나. 큰일이네. 왕자는 이미 강의 반을 건너고 있는데 이런 낭패가 있나! 아 그렇지.”

만득이는 주머니에서 귀리를 꺼내서 말에게 먹였어요. 그러자 무심히 풀만 뜯던 말의 눈이 붉게 변하고 네 발굽에 불꽃이 일더





니만 강으로 내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만득은 말갈기를 양 손으로 꼭 잡고도 대롱대롱 매달려 갈 수 밖에 없었어요.

왕자는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급해져 말에게 채찍질을 해대었어요. 왕자의 말은 수영으로 힘이 빠져버리고 왕자의 심한 매질에 그만 지쳐 물에 빠져 버렸어요. 만득은 그대로 달려 단숨에 강기슭으로 튀어 올랐어요.

이번에도 내기에 저버린 왕은 분한 나머지 얼굴이 붉으라푸르 락 했어요.

“좋다. 네 놈의 술법이 신기하다마는 나도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다. 내기는 자고로 삼 세 번이라고 하질 않았더냐? 아무리 네

놈이 난다 긴다 해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내기만큼은 따라
올 수가 없을 게다. 두고 보자.”

역시 이번에도 색시의 말대로 용머리바위 옆에 작은 돛단배 한
척이 바다 위에 두둥실 떠 있었어요.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아무리 나쁜 임금님이라도 이번에
지면 더 이상의 내기는 하지 않을 거야. 이번 내기만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만득이는 왕의 일행을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 왔어요. 능숙한 뱃사공들이
잔뜩 타고 있는 커다란 배에는 마지막 내기를 위해 왕과 왕자도
타고 있었지요. 만득이의 작은 배와는 다르게 돛이 여러 개 달리
고 수 백 명이 노를 저을 수 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배였어요.

“아바마마, 저 놈이 또다시 이상한 술법을 쓰면 어떻게 하지요?”

“내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길 터이니 두고 보거라. 내 직접
배를 지휘하겠노라. 이번만큼은 저 녀석도 별 수 없을 게야. 자



시간이 되었다. 어서 출발 깃발을 올리거라!”

만득이의 작은 배는 왕의 커다란 배의 물살에 밀려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파도를 헤치며 혼자 노를 저어 가기란 더 어려웠지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그때였어요.

‘우르릉 광광-, 우르르릉’

우렁찬 소리와 함께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왕의 배 앞면에 세찬 비바람을 몰아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왕은 이번에도 내기에 질까 노심초사하며 고래고래 악을 썼어요.

“겁먹지들 마라! 한낱 비바람일 뿐이다. 계속 노를 저어라. 이번만은 절대 질 수 없다. 만일 한 놈이라도 도망가는 놈이 있으면 전부 모가지를 벨 것이니 그런 줄 알거라.”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왕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집채만 한 파도가 배 옆구리로 들이치자 배는 기우뚱하더니만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대로 부서지며 바다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배와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깊은 소용돌이에 휘말려 깊은 바다 속으로 빨려들어 가고 말았어요. 욕심 많은 왕과 그를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비참한 최후였지요.

만득은 배를 육지에 대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반갑게 달려 나와 맞아줄 색시는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어요. 신도 벗지 않은 채 방안으로 들어간 만득이는 울고 있는 우렁이색시를 보게 되었지요.

“서방님 저와 약조한 삼 년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뵈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방님과 백년해로하고 싶지만 차마 그러질 못하는 저를 용서하세요. 그동안 잘 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 저는 아버님의 부름을 받고 용궁으로 돌아가야만 해요. 부디 몸 건강히 계시고…”

“아니, 색시 가진 어딜 간단 말어요. 가지 마시오. 나랑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요.”

하지만 우렁이색시의 몸은 이미 물방울로 점점 변해가고 어느새 산산이 부서져 갔어요.





“서방님 부디 건강하세요!”

“색시~, 색시~”

만득이는 물방울로 떨어져 가는 우렁이색시를 따라 바다로 나



왔어요. 그리곤 절벽위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당신 없는 이 세상에 어찌 나 혼자 살란 말이오.”

한없이 울고 또 우는 만득이의 슬픔을 아는지 하늘에서는 구슬
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만득이는 한없이 색시를 그리워하다
숨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파랑새로 다시 태어나 아직도 구슬프게
울며 이리저리 우렁이색시를 찾아다닌다고 하네요.





온가족이 함께 읽는

김포의 옛이야기

04

증봉선생과 대감바위

중봉선생과 대감바위



김포에는 약 7~8평쯤 되는 넓은 바위가 강 중상을 향해 있는, 한강 본류에 이르는 지류가 있어요. 이 지류에 있는 바위를 '감바위', 그리고 이 바위가 있는 나루터를 '감바위 나루터'라 부르고 있지요.

하지만 원래 이 바위는 중봉 조헌선생이 앉아 우국충정을 달래던 바위라 하여 '대감바위'라 불렸었는데, 세월이 흘러 '감바위'

로 이름이 바뀐 것이지요. 이 감바위에는 이름 없이 역사의 그늘 속으로 사라져간 의병들의 넋과 함께 순국한 의병장 조현의 혼이 서려있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은 선조 때에 접어들어 양반들이 당파 싸움을 일삼으면서 국방을 소홀히 하였어요. 중봉선생의 스승인 이이가 '십만양병설'을 주장하여 국방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도리어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는 실정에 있었지요. 그처럼 조선이 안일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은 새로운 국면을 맞기 시작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와 혼란기를 수습하고, 전국을 통일하여 강력한 지배권을 강화한 것이예요. 그리고 도요토미는 국내 통일에 이용한 제후들의 힘을 밖으로 돌려 자체의 불안을 없애려 했지요.

특히 당시 유럽에 의해 발전한 신흥 상업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대륙 침략을 꿈꾸게 되었던 것이예요. 그의 처음 의도는

조선과 동맹을 맺고 명나라를 침공하자는 데에 있었어요. 조선에 서신을 보내어 통신사를 보낼 것을 요구해 왔지요. 서신에 무례한 구절이 있어 거절했으나 재차 교섭이 와서 황윤길과 김성일을 통신사로 보내어 그들의 속셈을 살폈어요. 그러나 두 사신의 보고는 상반되어 조정의 대신들도 의견이 엇갈렸지요.

황윤길은 서인(西人)이고 김성일은 동인(東人)이라 감정이 대립된 것이었어요. 결국 조정은 일본의 침략을 예상하는 황윤길의 보고를 무시하고, 김성일의 의견을 따르게 되어 국방을 소홀히 했지요. 늦게 서야 일본의 대륙 침략 계획을 알아낸 조정은 요충지인 영남에 힘을 기울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다만 전라 좌수사 이순신만이 전쟁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이러하니 중봉선생은 다급해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명나라를 칠 수 있게 조선이 길을 좀 비켜 달라'는 서신을 가지고 온 일본 사절의 목을 베고 국토방위를 더욱 튼튼히 할 것을 임금님께 상소했어요.

하지만 나라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임금



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상소문을 늦은 밤까지 봐야할 의무가 있었어요. 자기의 도끼를 쬐어지고 올리는 '지부상소'는 왕을 가장 강력히 압박하는 상소였지요. 받아들일 수 없다면 도끼로 목을 쳐달라는 것이니 왕인들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리 없는 것이었지요.

이런 상소를 올렸음에도 선생은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한탄하며 궁궐 주춧돌에 스스로 이마를 부딪쳐 피가 흘렀지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중봉선생을 비웃으며 말을 했어요.

“아니! 저 답답한 사람보소. 시절이 이리 평화로운데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지고.”

“내년 봄 너희들이 도망칠 때에는 반드시 나의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중봉선생은 이 말을 남기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선친의 묘소가 있는 김포 근처로 오게 되었지요. 중봉선생은 성격이 강직하고 여러 가지 글을 널리 보아서 천문에까지 지식이 통해 있었어요.

눈으로 보는 세상 일이 날마다 어긋나가고 나라는 파가 갈려 더

욱 시끄러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이 날도 대궐에 나아가 피눈물이 어린 상소를 임금에게 올렸던 것이었는데, 그 말이 몹시 간절하고 직선적이어서 오히려 당히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를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목하여 배척하고 쓰지를 않았던 것이예요. 그 결과로 선생은 출신 고을에서 출세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돌며 지내야 했지요.

마침 중봉선생의 가까이에 나이든 선비가 한 사람 있었는데 선생 집안의 외숙이었어요. 그는 나이가 많고 행실이 좋아 조현은 항상 그를 공경하며 섬겨왔어요. 그런데 그가 앞서 있었던 이런 저런 선생의 행실을 사람들에게서 전해 듣고는 조용히 선생을 불러 타일렀지요.

“듣자니, 자네가 거적을 깔고 도끼를 가지고서 대궐 아래에 나가 상소를 올린데 대해서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 어찌 또 그대가 다시 망령된 말을 되풀이해서 순박한 시골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가? 모름지기 잘 생각해 처



신하도록 하게.”

그 말을 곰곰이 듣고는 선생은 딱 잘라 말하였지요.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니 내년에 나라에 병란이 동쪽에서부터 일어나는데 나라가 생겨난 이후 아직까지 없었던 큰 변이옵니다. 원컨대 아저씨는 내 말을 허망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미리 난을 피할 방도나 생각해 두십시오.”

이에 외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 중봉선생은 근처 나무터 넓은 바위에 앉아 시름에 잠겨 낚시를 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물살에 밀려오는 널빤지를 발견했어요.

건져보니 그것은 조선의 나무가 아니라 일본이 배를 만들 때 쓰는 나무인 '삼목'이었어요. 선생은 일본이 많은 배를 만들므로 해서 그 삼목의 조각들이 조수를 따라 떠밀려온 것임을 알고 그 널판조각에다 그 사연과 함께 왜구의 침공을 막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을 상소하였으나 이 역시 무시되었지요.

결국 1592년 4월13일 부산에 상륙한 왜군이 동래를 침략하고



파죽지세로 북상, 5월2일 서울이 함락되자 선조는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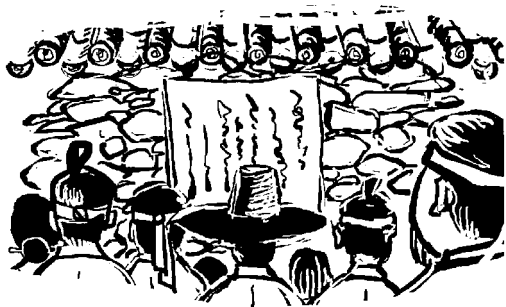
이에 선생은 제자인 이우, 김경백, 전송업 등과 의논하여 의병을 일으켜 나라의 위기를 구하기로 하고 전국에 격문을 돌리니 그를 평소에 존경하던 나라를 구하려는 많은 장정이 속속 그의 부하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의병 모집도 결코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지요. 선생의 부하로 많은 장정이 모여드는 것을 본 순찰사는 장정들이 모두 의병이 됨으로써 관군이 불리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의병 모집을 방해한 일까지 벌어진 것이지요. .

당초 중봉선생은 의병을 모아 왕이 있는 의주로 갈 계획으로 공주로 순찰사를 찾아가 의논했는데 그는 크게 감동하고 함께 거사할 것을 청했었어요. 이에 선생은 처음의 계획을 버리고 공주에서 의병을 모으니 며칠 만에 1천여 명이 모여들었어요.

이때 행실이 안 좋은 '안세현'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때부터 많은 우리나라 사람을 죽여 머리모양을 왜병의 머리라





고 속여서 나라에 전공을 보고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예요.

중봉선생은 이 사실을 알고 그의 죄를 폭로하자 '안세현'은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순찰사를 찾아가 충동질을 하였던 것이지요.

“중봉이 먼저 공을 세우면 당신은 의병보다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다고 해서 나라에서 죄를 물을 것이요.”

순찰사는 이 말을 듣고는 각지에 글을 보내서는 의병의 부모와 처자를 가두어 놓기도 하고 또한 중봉의 밑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이와 같이 중봉선생은 순찰사의 방해 공작으로 의병 모집이 한 때 타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곧 이광륜, 장덕익, 신난수, 고경우, 노응탁 등이 부하를 이끌고 선생에게 찾아옴으로써 1600명이라는 큰 병력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7월4일 공주에서 잔치를 벌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한편 출전을 앞두고 선생은 다음과 같이 훈시를 했어요.

“말 없는 가운데 항상 긴장하며 민폐를 끼치지 말고 적병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국난만을 생각하고 진격만을 생각하라. 작은 이익을 탐내지 말고 항상 큰 적을 상대하라. 몸과 마음을 다해 공명심을 억제하고 오직 끝까지 의로운만을 생각하라.”

중봉선생이 이끄는 의병이 최초로 왜군과 싸운 것은 8월1일 청주 전투였어요. 청주로 가서 죽음을 각오한 의병들과 승병장 영규대사와 함께 싸움에 임했지요.



이런 자세로 싸우니 왜군은 성안으로 도망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다시 총공격의 복을 올리자 의병들이 성 밑과 망루에서 돌과 화살을 퍼부어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던 왜군은 모두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 후 왜군은 금산에 주둔하며 수시로 민가를 약탈했지요. 그럼에도 관군은 나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보성, 남평의 관군이 고개를 넘어 적을 엿보다가 왜군의 기습으로 남평 현감은 전사하고 5백여 명의 군사는 전멸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지요.

이런 현실에 분개한 선생은 한 시각도 지체할 수 없었어요. 그리하여 8월17일 금산성 북쪽 5리쯤에 있는 경양산에 진을 치고 왜군과 남북으로 대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신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한 1만여 명의 왜군은 밤새도록 우리가 포진한 주위를 포위, 마침내 8월18일 날이 채 밝기도 전에 3개부대로 나뉘어 사방으로 선제공격을 해왔지요. 선생의 병력은 승병을 합해 700명 의병이 전부였어요.



“왜적이다. 죽여라.”

천지를 가를 고향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포성이 지축을 흔들었으며 총알이 비 오듯 사방에서 쏟아졌어요.

왜군은 포위망을 좁혀 공격해왔지만 의병들은 오직 붉은 피와 총질만으로 굳게 대항을 했지요. 이들의 무장 상태란 기껏해야 활, 낫, 쇠스랑, 몽둥이, 도끼, 곡괭이가 전부였어요.

“단 한 번의 죽음이 있을 뿐이다. 생사를 초월해 진격하고 물러남에 있어 의에 부끄럼이 없게 하라.”

의병장 중봉선생의 마지막 지시이자 절규였어요. 이에 힘을 얻은 의병들은 부상을 입어 쓰러지고도 다시 일어나 화살을 당겼고 화살이 떨어지면 칼과 창을 잡고, 칼과 창이 떨어지면 몽둥이와 돌로, 그리고 맨주먹으로 싸우는 처참한 육박전이 벌어졌어요. 해가 질 무렵 우리 군사들은 화살도 떨어지고 병력도 얼마 남지 않았지요. 치열한 격전이 계속됐어요. 드디어 왜군이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휘하의 몇몇 부장이 선생을 구하려고 급히 피신시키려 하였으나 선생은 말했어요.





“대장부가 죽으면 그만이지 구차하게 살 수는 없다!”

불꽃이 튀는 칼끝에 핏방울이 흐르고 낫과 곡괭이가 부러지면 맨 주먹으로 맞부딪쳐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거두면서 악전고투 하였습니다.

이윽고 다음날, 아침 햇살이 들뜬에 퍼질 무렵 중봉선생을 비롯한 700여 의병은 저마다 최후의 순간까지 한 사람도 대열에서 벗어나거나 자리를 떠나는 사람 없이 이렇게 선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토벌함을 가상히 여겨 내려진 임금의 교지조차 받지 못한 채 말이지요.

선생은 이미 스승 이지함을 통해 자신이 여기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선생은 일찍이 선조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선생은 세 사람 있으니 이지함, 이이, 성혼이라고 항상 말을 해왔었지요. 특히 울곡선생의 학덕을 배우고 기리기 위해 스스로 ‘후율(後栗)’이라는 호를 지어 사용할 정도였지요.

어느 날 토정 이지함이 중봉과 함께 바닷가에 앉아 있었어요. 물 위로 조각배 하나가 사람도 없이 절로 흔들거리며 다가 왔지



요. 그것을 보고 이지함이 중봉에게 물었어요.

“자네 이게 뭔지 알 수 있겠는가?”

이에 선생은 대답을 했지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토정은 중봉에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지리산 선인이 배를 보내 우리들을 맞이하는 것이
라네.”

배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두 사람이 타자, 배는 다시 저절로 흔들거리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한나절을 가더니 배가 어떤 산 아래에 닿았지요. 배에서 내린 두 사람이 산으로 올라가니 처음 보는 커다란 석굴이 있었어요. 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는 밝고 넓은 터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온 몸에 붉은 털이 난 사람 하나가 돌로 만든 평상 위에 앉아 있었어요. 중봉은 그 상아래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붉은 털이 난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토정에게 말하었어요. 그



런데 중봉이 옆에서 들었으나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후에 작별을 하고 굴 밖으로 나왔을 때, 중봉이 토정에게 물었어요.

“아까 주고받으신 말씀이 자못 많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헤어질 때에 석굴에 있는 선생이 ‘산에서 조심 하십시오’ 라고 하니 선생께서는 ‘운수지요’ 라고 하셨는데, 어찌 이 한마디 말로 저 혼자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함은 중봉을 보며 말을 했어요.

“아까 굴 안의 그 분이 한 얘기는 나는 아산에서 죽을 것이고, 자네는 금산에서 죽을 것이니 모름지기 삼가 피하라고 한 것이네. 그래서 내가 운수라고 핑계를 댄 것이지.”

그러니까 중봉선생은 죽을 운명을 피하지 않고 장렬한 최후를 맞으신 것이지요. 중봉선생은 비록 적에게 결국 패해 목숨을 잃었으나, 온 군사들이 선생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투어 서로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또 조정에서는 이를 가상히 여겨 선생에게 참판 벼슬을 내리고 호서와 호남의 문하생들은 재물을 모아서 좋은 돌을 캐다가 글 솜씨가 빼어난 분한테 글을 청하여 그가 싸우다 죽은 곳에 그의 행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기에 이르렀지요.

이를 두고 볼 때 중봉선생은 남과 다른 재주를 가지고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 귀중하게 쓰이지 못하고 어려운 때를 맞아서야 능히 탁월한 능력을 보였으니 더더욱 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살아 있으면서 그의 높은 뜻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은 매우 애석한 일임이 분명하지요.

자리를 떠나는 사람 하나 없이 7백여 의병은 이렇게 선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고난과 치욕으로 얼룩진 임진왜란의 역사를 외면만 할 수 없는 것은 이름 없는 7백여 의병의 순국과 중봉선생의 투혼이 아직도 우리 역사의 맥락 속에 고동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금산의 칠백의총은 그분들의 넋을 모신 곳이며,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넓게 트인 김포평야가 바라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우저서원은 증봉선생을 제향한 곳으로 우리고장의 자람이
자 정신적 지주로 삼는 곳이 되었어요.

그러나 대감바위만은 들어가는 길이 따로 없고, 참호나 군사 시
설 그리고, 철책 등으로 한강변 쪽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 쉽게
보기 어렵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온가족이 함께 읽는

김포의 옛이야기

05

우애 있는 형제

우애 있는 형제

옛 성현의 말씀 중에 견리사의(見利思義)라는 말이 있어요. 눈 앞의 이익을 보면 먼저 정의를 생각하라는 말이지요. 정당하게 얻은 부귀가 아니면 취하지 말고, 의를 보거든 용기를 내어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 말이기도 하구요. 이 말을 반영하는 이야기가 우리 고장에도 전해오고 있어요.

때는 650여 년 전 고려 공민왕 때의 일이에요. 양천 궁산의 공 암나루 부근 어느 마을에 형제가 있었어요.

형의 이름은 억년이고 동생은 조년인데 마을에서도 우애가 깊기로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그러나 일찍이 부모님을 잃는 바람에 가정형편이 몹시 어려웠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를





불러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려줄 재산이라곤 조그마한 땅덩이 몇 마지기뿐이니 너희에게 부모로서 면목이 없구나. 하지만 이것을 꼭 명심하도록 하여라! 천하에 얻기 어려운 것이 형제이고, 구하기 쉬운 것이 농토이다. 가령 농토를 얻는다 하더라도 우의를 잃게 된다면 너희 가진 것을 전부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넓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라곤 너희 두 형제가 전부이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를 의지하고 도와주며 살아야 할 것이야.”

두 형제는 부모님을 땅에 묻으면서 굳게 다짐을 했지요.



“아우야! 우리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어떠한 경우가 닥쳐와도 오직 우애와 공경함으로 마음을 다스려 움직이지 않도록 하자꾸나.”

그 후에 형제는 낮에는 밭에 나가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였으나 몸과 마음이 지쳐 겨우 이름 석 자만 깨우칠 정도의 학식밖에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슴에 의로운 생각만은 그 누구보다도 가득한 형제였지요. 그러던 중, 이런 일이 있는 후에 형제는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해졌어요.

이 마을에는 매년 가뭄과 흉수가 번갈아 들어 흉년이 계속 되어 살림살이가 영 나아지질 않았어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 떠나가는 일이 많았지요. 형제는 이런 비참한 모습 앞에서 가뭄과 흉수를 막아낼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곤 하였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땀감을 하러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 스님 한 분이 쓰러져 신음하는 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다가 친절히 간호를 해주었어요. 스님은 형제의 정성스러운 간호로 건강을 회



복했는데, 하루는 형제가 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을 걱정을 하게 되었지요.

“스님 제가 사는 이 마을에는 해마다 가뭄과 홍수가 심하여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데 불쌍한 농민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런지요?”

이야기를 듣던 스님은 장삼 속에서 종이, 붓, 베풀을 꺼내어 이 지방의 지형, 하천, 산세 등을 자세히 그리게 하였어요. 형은 스님에게 자세히 그림을 그려주었지요. 그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던 스님은 붉은 묵으로 선을 그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 붉은 선을 따라 제방을 쌓으면 반드시 가뭄과 홍수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일러 주고는 길을 떠나셨어요.

그날 밤 형제는 깨끗이 목욕을 한 후 천지신명에게 그들의 뜻을 알리고 용기와 힘을 줄 것을 기도했어요. 이렇게 해서 마을 제방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흙을 저다 붓고 돌을 쌓는 등 형제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형제는 서로에게 격려를 하며 일을 계속해나갔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는
이가 나타날 것이야. 아우야 고되더라도 우리 조금만 참아보자
꾸나.”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너무나 열성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 도와
주기 시작해 마침내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일을 하게 되
었어요.

“이거! 도대체 일이 끝이 없으니, 차라리 침에 시작 안 함보다
못한 걸. 우린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소. 미안하오.”

워낙 큰 공사라 도와주던 사람들도 기망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
시 하나 들 떠나기 시작했지요.

결국 들만 남은 형제는 오직 그 스님의 말을 믿고, 마을을 기필
코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이를 악물며 마침내 공사를 시작한 지 3
년 만에 제방을 완성하였어요.

나라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형제에게 제방의 소유권과 물세 받
을 권리를 주었으나 형제는 제방을 마을 사람들에게 기증하였지



요. 이후로 떠나갔던 마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형편은 점점 나아져갔어요. 그러나 형제의 살림은 고만고만했지요. 그래도 마음만은 뿌듯했어요. 이윽고 부모님의 기일이 다가오자 형제는 배를 타고 장에 가야만 했어요.

아침 일찍 채비를 끝내고 발걸음도 가볍게 노래를 부르며 길을 걷고 있었지요.

한 살 먹어 어마죽고 두 살 먹어 아바죽고
새 살 먹어 형제 손에 근근 듯이 자란 몸이
만 다섯 살 되어 가지 책으란 야페 끼고
부푸순 입에 물고 팔도강산 돌아 당겨
어찌하다 도사 만나 글 읽기를 배와 노니
고향산천 도라 와서 급제라 하였고나

그러다가 폐광 근처를 돌아 흐르고 있는 작은 개울을 건너고 있을 때였어요.



“아니, 형님! 저기 개울 속에 번쩍거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동생은 흐르는 물속에서 무엇인가가 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흐음, 글썸다. 우리 한번 내려가서 확인해 보자꾸나.”

형제는 비탈길을 조심히 내려갔어요. 그리곤 물속에 발을 담그고 반짝거리고 있는 것을 집어 들었어요.

“어이쿠나! 이거 말로만 듣던 황금덩어리가 아니냐? 아우야! 우리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재물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게 되었어.”

두 형제는 뭉 듯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우가 한숨을 쉬네요.

“아우야, 왜 그러느냐? 기쁘지 않은 게야?”

“형님! 금덩이가 한 개 뿐이니 혹여 우리가 다투게 될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형도 아우의 말을 듣고 보니 말에 일리가 있어 난감해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위쪽에서 반짝거리는 금덩어리 한 개가 또 다시 굴



러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필시 하늘이 우리 형제에게 내려준 선물일 게야. 아우야 우리 한 개씩 사이좋게 나뉘 갖자꾸나.”

그제서야 동생도 얼굴에 미소를 띠며 금덩이 한 개를 형님에게 넘겨주고는 품에 넣었어요. 두 형제는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드디어 공암진에 이르렀어요. 배를 타고는 강을 건너고 있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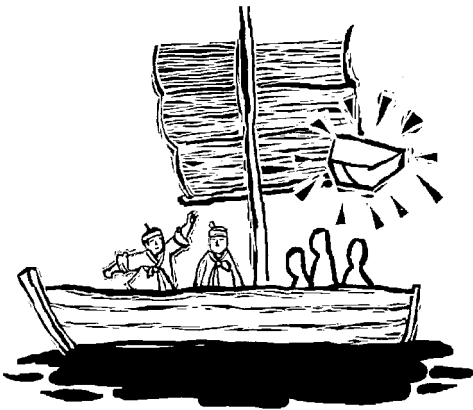
그런데 갑자기 아우가 가슴속에 소중히 품고 있던 금덩이를 꺼내더니만 별안간 깊은 강 속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었어요. 같이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가장 놀란 것은 형이었어요.

“아니 아우야! 너 제 정신인 게야?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야? 여긴 강이 깊어 다시 찾아 올 수도 없는 곳이란 걸 모르느냐?”

동생은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형을 향해 침착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도 이 금덩어리가 우리 형제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말을 안 해도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까지 우리 형제간 의리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된 것도, 우리가 다 같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황금덩어리면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



면 자연 일도 안하고 그로 인하여 더 큰 욕심이 생기고 또 나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형제간의 의리는 갈라지고 서로 믿던 형제가 남남이 안 된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 저는 갑자기 금 덩어리가 싫어지고 무서워져서 물에 던졌습니다.”

아우는 이런 말을 하며 눈물을 툭툭 흘리는 것이었어요. 아우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형도 보따리 속에 넣어놓은 금덩이를 꺼내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는 힘차게 강으로 던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우를 향해 말했어요.

“네 말이 백번 옳다. 내가 너에게 한 수 배웠구나! 허허허. 우리들의 정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느니라.”

두 형제는 배가 강가에 닿을 때까지 서로를 일싸 안았어요. 배 안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도 형제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 박수를 쳐주었다고 해요.

위의 고사는 황금을 앞에 두고 형제간의 우애가 갈라질까봐 이를 염려한 형제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형제는 부모의 몸을



나누어 가지고 같은 피를 이어 받은 사람들이지요. 어릴 때에는 부모의 크나큰 사랑을 고루 받고 자랐고 함께 밥을 먹고 옷을 돌려 입으며 학문은 서로 이어받고, 언제나 뜻을 같이하지요.

형과 아우는 세상에서 가장 친하면서도 가장 많이 싸우는 사이이기도 하지요. 사람이 있는 후에 남편과 아내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 후에야 아버지와 자식이 있으며, 아버지와 자식이 있는 후에야 비로소 형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옛 조상들이 중요하게 여긴 이 세 가지를 우리도 더욱 두텁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경기도 김포 일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이들 형제가 금덩이를 강물 속에 던졌다고 해서 투금뢰(投金瀨), 즉 '금을 던진 여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의 '김포(金浦)'가 되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온가족이 함께 읽는

김포의 예이야기

06

호자 덕칠이

효자 덕질이

옛날에 왕이 한 지방을 방문했는데, 그 지방에 왕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한 노모가 있었어요. 그 노모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한 효자가 노모를 업고 수십 리 길을 걸어서 왕의 행차를 보시게 했어요. 그때 왕은 노인을 업은 그 효자의 효성에 감복하여 후한 상을 내렸지요.

그 소식을 들은 한 불효자가 왕의 상을 노리고 원치 않는 노모를 업고 돌아오는 왕의 행차를 구경하는 척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왕은 그에게도 후한 상을 베풀라고 했어요.

동네 관리들이 말했어요.

“그 녀석은 평소에 불효자인데 상을 노리고 그렇게 흉내 내는 것뿐이에요. 상보다는 벌을 내리소서!”



그러자 왕은 신하에게 말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저 사람에게도 상을 내리거라.”

그러자 불효자도 잘못을 뉘우치고 나중에 진짜 효자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듯 효도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는 즐거운 전염병이지요. 여기 이곳 봉성 2리 해발 200여 미터 산 중턱 100여 미터 높이에 있는 서낭고개에도 옛날부터 효자에 대한 애뜻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어무이! 어무이! 저 산에 나무하러 후다닥 다녀올게요. 점심 거르지 마시구요. 부엌에 저녁거리 차려놨어요. 꼭 챙겨 드세요.”

덕칠이는 커다란 나무지게를 어깨에 메고는 성큼성큼 산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오냐 이눔아! 덕칠아! 산에선 짐승들 조심하구 쉬엄쉬엄해라. 몸 다치지 말고. 예구! 네가 못난 어미 만나 고생이 많구나.”

노모는 몸집만 커다란 바보스러울 정도로 착한 아들이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덕칠이는 노모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터벅터벅 지게자루를 돌리며 걸어가고 있었지요. 하늘에는 잠자리가 이리저리 분주히 날아다니고 있네요.

잠자라 꿈자라
고기 고기 앓아라
앓은 자리 앓아라
멀리 가면 죽는다
잠자라 꿈자라



고기 고기 앓아라
멀리 가지 말아라
멀리 가면 죽는다.

“아니 이게 누군가? 덕칠이 아냐?”

덕칠이가 고개를 들어 배꼽이 쳐다보니 저갯거리에 왈패 녀석들이 거나하게 휘해선 길을 딱하니 막고 서있는 것이었어요.

“어디 가는 길인가?”

“장에 가서 어무이 좋아하시는 인절미 사다 드리려고 산에 나무하러 가는 길이구만.”

왈패들은 지들끼리 머라 쑥떡 거리더니 키득키득 거리며 덕칠이에게 말했어요.

“덕칠이 자네 그거 아는가? 저기 저 산을 세 개 넘어가면 산봉우리 꼭대기에 신기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속엔 황금잉어가 딱하니 있다지. 고놈을 잡아다 고아먹으면 허리 아픈 것이 그냥 달아난다던데.”

덕칠이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어요.

“고것이 참말인가? 거짓부렁 아닌가? 참말이면 우리 어무이 매일 허리 아픈 거 고걸 정말로 고칠 수 있는가?”

“그럼, 먹기만 하면 담방에 직빵이지. 잉어란 놈은 달팽이를 좋아하니 고놈을 대에 매달아 내리면 덩석 물어 버릴 것이야.

덕칠이는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정말 고맙네 그려, 내 지금 당장 고놈을 잡으러 가야겠어.”

“이보게! 덕칠이. 이런 좋은 방법을 알려줬는데 엽전 한 냥 정도는 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친구라서 내 특별히 싸게 해주는 것인데...”

덕칠이는 생각했어요.

“엽전 한 냥이면 내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나무를 해야 생기는 돈이지만 어무이 허리만 낫는다면 이까짓 것 하나도 아깝지 않지.”

왈패들은 말 한마디로 엽전 한 냥을 벌고, 그 돈으로 공짜 술을 마실 것을 생각하니 좋아서 죽으려는 표정을 애써 감추며 돌아서



서 덕칠이를 비웃으며 장으로 갔어요.

덕칠이는 날랜 걸음으로 벌써 산 하나를 넘고 있었지요. 점심을 굶었지만 전혀 배고프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황금잉어를 벌써 잡은 듯 했죠.

“아 그렇지! 달팽이를 잡아야하는데…”

옆에 나뭇가지 하나를 잡고는 눈대중으로 대를 만들고서는 덩굴을 잘라 줄을 만들고 달팽이를 매달았어요.

산봉우리 세 개를 벌써 다 넘었는데 이놈의 우물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 것이었어요. 산속의 어둠은 생각보다 빨리 들어서지요. 산 그림자가 이미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천지신명님께 이렇게 비읍나이다. 올 착한 아들 덕칠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올 하나뿐인 아들 몸 성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정한수를 떠놓고 노모는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돌아올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 덕칠이는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노모는 끼니도 거른 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희미하게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덕칠이는 힘이 쭉 빠져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군데군데 뭉쳐있고 한 날 피약벌에 바싹 그을려 하얀 소금기가 얼굴에 번져 있고, 온 몸은 흙투성이인 아들을 보고는 노모는 말을 잇지 못했지요.

“어무이! 저 왔어요. 진지는 드셨어요? 죄송해요. 우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우물을 평평 흘리며 덕칠이는 말했어요. 노모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영문을 몰랐지만 자초지종을 다 듣고는 나쁜 친구들한테 속은 것을 알았지요.

“덕칠아! 이 어미는 황금잉어를 이미 먹은 것처럼 허리가 안 아프구나. 아픈 곳이 하나도 없으니 담부턴 그런 거 없어도 된단다. 이 어미는 덕칠이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나단다.”

노모는 걸으론 웃고 있었지만 저렇게 착하다착한 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까 걱정 돼 속으론 피눈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자자! 싱싱한 고등어자반 사시구려들. 한 손에 단 돈 엽전 한 냥.”

“오늘 아침에 바로 부화한 따끈따끈한 달걀 한 꾸러미에 닷 푼. 어! 싸다.”

덕칠이는 장날이 마냥 신나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미 일찌감치 집을 나서 나무를 다 팔고는 주머니가 두둑해서는 말이 지요. 한참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결국 산 것은 노모가 좋아하시는 인절미였어요. 방금 떡매질을 끝내고는 고물에 묻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절미였죠.

군침이 돌아 한 개 집어 먹고 싶었지만 집에 계신 어무이와 같이 먹기 위해 침만 꼰딱꼰딱 삼키고 있네요. 인절미를 가슴팍에 고이 모시고 가려는 순간 턱하고 어깨를 잡아채는 인간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왈패.

“이게 누군가. 울 절친한 친구 덕칠이 아닌가. 그래 잉어는 잡았는가?”

“우물을 못 찾아서 그냥 허탕만 쳤네 그러. 그날 어무이가 걱정

을 너무 많이 하셔서 죄스러워 고개를 못 들었었네. 아 그리고 울 어무이가 그러시는데 이제 아픈 데가 없으시다네. 흐흐흐.”

“아니 덕칠이 이 친구야. 자네 효심이 부족해서 우물을 못 찾은 것 이구만. 그리고 자네 어무이가 아픈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부렁이구만, 그걸 정말 믿었던 말인가? 허허! 이 친구 참 답답하네 그려. 그건 그렇고 자네 이제 나이도 꽤 찾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지내려고 하는가? 자고로 늙은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장가를 들어야지?”

덕칠이는 눈만 껌뻑 거릴 뿐이었지요.

“이 사람아 친구 좋다는 게 먼가! 우리가 그래서 자네 장가 보내주려고 배필을 썬해왔네 그려.”

“아니 그것이 참말인가?”

“참말이구 말구. 자넨 지금부터 서낭고개에 가면 그 길옆에 커다란 돌 있지 않은가? 거기 뒤에 숨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않은가? 기다리다 더도 말구 딱 세 번째 오는 사람이 자네의 천생배필이지. 그러면 덩석 손을 잡구 집으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야. 자네 어무이도 무지 기뻐하실 것이야. 허허허.”

“아 그런가? 세 번째라 세 번째. 알아들었어. 이거 고마워서 어찌지.”

“이게 어디서 나는 고소한 콩가루 냄새가? 아 배고픈데.”

“아 그거 을 어무이 갔다드릴 인절미 말인가? 이거라도 먹을텐가?”

덕칠인 저도 아까워 못 먹어본 인절미를 통째로 건네주곤 서낭고개로 향했어요. 월패들은 나무 그늘 밑에서 인절미를 오물오물 씹으며 지나가는 각시에게 지분거리다 귀싸대기나 맞을 덕칠이를 상상하며 배를 잡고 이리저리 뒹굴고 있네요.

에라! 마른하늘의 벼락 맛을 인간들!

드디어 도착한 서낭고개. 매일 넘나들던 고개지만 오늘은 왜 이리 특별하게 보이는지. 사랑의 시작이자 끝이 기다림이라고 누가 그랬던가요?

바위 뒤에 자리 잡은 덕칠이는 뚫어져라 누가 오기만을 기다리



네요. 평소에도 길이 험해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던 고개지만 오늘은 더더욱 사람의 기척이 없었어요.

“위이! 위이! 이놈의 소가 오늘따라 왜 이리 말을 안 듣는 게야? 귀신을 봤나? 빨리 가자 누렁아.”

첫 번째 사람이자 성별은 확실히 남자인 노인과 숫소가 지나갔어요. 해는 누엣누엣 저서 중턱에 걸리고 나뭇잎들도 힘없이 축축 늘어졌지요.

“할무이 아직 멀었어요? 우썬, 다리 아픈데.”

“좀 만 참으면 금방 도착하는구먼. 자 이 누렁지 먹고 날 저물기 전에 후딱 가야겠구먼.”

손자와 할머니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앞서거나 뒤서거나 고개를 넘어갔어요.

“이번이 두 번째구나.”

덕칠인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이번이야. 이번이 세 번째 맞는구나. 호호호.”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날은 저물고 어둑어둑해졌어요. 커다란 소나무 위에 올빼미가 얼굴을 삐딱 돌리며 호기심어린 큰 눈을 깜빡대며 덕칠이를 보고 있었지요. 배도 고프고 지치고 잔뜩 긴장했더니 어쨌죽지도 걸리고 이젠 가야겠다고 바지춤을 툭툭 털고 일어서려는데 어디선가 나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네요.

‘또각또각 또각또각’

달은 밝고 은은한 미풍에 실려 오는 향긋한 분취냄새에 덕칠이는 정신이 멍해졌어요. 저 고개 아래에 보이는 것은 분명 아리따운 처자가 나귀를 타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광경이었지요.

젊은 처자는 그대로 덕칠이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곤 나귀에서 내려 커다란 눈으로 덕칠일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순진한 총각 덕칠이는 이런 상황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던지라 말 한마디 못하고 애꿎은 바짓단만 만지작거린 채 그만 집으로 도망가듯 뛰어 내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집까지의 거리가 오늘처럼 짧게 느껴지긴 참이었어요. 그대로 부엌으로 달려 들어가 물 한바가지를 퍼서 벌컥벌컥 퍼 마시곤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 앉았지요.

일어서는 순간 눈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건 아까 그 처자가 아닌가?

“소녀 부모님이 변괴를 당하시고 고향을 홀로 떠나와 갈 곳이 없었는지라 무례한 줄 알면서도 고개에서 처음 뵈는 서방님을 따라 왔네요. 부디 나가라고 내치지만 앓으신다면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 런지요?”

말소리에 무슨 일인가 방문을 열어본 노모는 웬 젊은 처자와 아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놀라 입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임자 나왔소. 어무이 저 왔어요.”

“저방님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씻고 어서 진지 드세요.”

덕칠이네는 부지런하고 재주 좋은 각시 덕에 공간은 나날이 가득 차만 갔고 노모의 몸은 언제 아팠냐는 듯 건강해져만 갔어요. 노모는 며느리를 복덩이라 부르며 애지중지 했지요.

한편 덕칠이가 예쁜 각시에게 장가를 가서 호의호식하며 잘 산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알패들은 말했어요.

“자네들 그 얘기 들었는가? 아 글썤 우리가 덕칠이한테 한 얘기 말이야. 근데 덕칠이가 진짜로 색시를 만나 장가를 들었다지 만가? 자네 혹시 진짜로 처자를 소개해준 건가?”

“아니 내가 미쳤는가? 나도 각시가 없는데 누굴 소개해 준단 말인가?”

“흠 우리 그렇게 아니고 오늘 저녁에 몰래 덕칠이네로 가서 소



문이 사실인지 확인해봅세.”

칠혹같이 어두운 밤, 왈패들은 덕칠이네 담장 아래 숨어서 몰래 안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부엌문이 열리며 선녀 같은 처자가 ‘섬섬옥수’ 같은 하얀 손으로 광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 니겠어요?

“아니 저것이 선녀야? 사람이야? 필시 이 세상 처자는 아닌 듯 하구만. 아니 덕칠이 이놈은 먼 복이 터져서 저런 색시와 산단 말 이야? 안 그런가?”

“그럼, 그럼 덕칠이 녀석이 이렇게 된 데는 우리 공두 들어가 있는 거야. 안 그런가? 우리에게 단단히 한 몫을 떼어줘야 하는 거야. 그냥은 못 넘어가지.”

왈패들은 작당을 하면서 서낭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난 여기만 오면 기분이 이상하게 찝찝해. 후딱 가세들.”

‘획 획’ 누군가가 재주넘기를 하더니만 왈패중의 한 명이 목덜미에서 피를 낭자하게 뿜으며 나무 위로 끌려 올라가요. 발버둥을 쳐보지만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축 늘어지는 모습에 남은 두



왈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콩지가 빠지게 달음질 쳤지요.

‘캐깅’

외마디 울부짖음과 함께 획 넘어와선 한 명을 노리는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슴팍이 뚫리면서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간만 쪽 빼간 친구의 몸을 보며 남은 마지막 사내는 도망갈 의욕을 잃은 채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극도의 공포 속에서는 온 몸의 모든 기능은 정지되기 마련이지요.

그 순간 인간의 등맥에서 느껴지는 피의 고통을 느끼며 온 몸이 백옥 같은 흰털로 뒤덮인 백여우가 목덜미를 향해 다가서려 할 때, 핑하며 어디선가 날아 온 붉은 새매의 깃털로 만든 화살 한 발. 순간 역동작으로 간신히 몸을 피한 백여우는 몸을 돌려 숲 저 멀리로 쏜살같이 사라졌어요.

“한 발 늦었군.”

사냥꾼도 여우가 사라진 쪽을 매섭게 응시하며 바로 쟈 걸음으로 쫓아갑니다.

“언니, 여기서 머 하는 거야? 내가 이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라



고 부탁했을 텐데?”

곱던 덕칠의 색시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 몸이 붉은 털이 뻑뻑한 꼬리 아홉 달린 구미호였던 거예요.

“흠, 너의 본분을 잊은 건 아니겠지? 너의 손에 우리 구미호 일족의 목숨이 달려있어. 붉은 달이 뜨는 날 밤에 천 번째 인간의 간을 먹으면 우리 구미호족들은 더 이상 추잡한 인간의 간을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선 꼭 인간과 사랑에 빠져야만 가능하지. 사랑하는 사람의 기운이 모인 간을 먹어야 하니 말이야. 그 붉은 달을 우린 천 년을 기다려 왔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 만일에 그 간을 먹지 않으면 그동안의 먹은 간의 부작용으로 넌 죽고 말아. 다음 달 그름이야. 잊지 마라.”

“언니가 쓸데없는 살생만 안했어도 그 사냥꾼은 우릴 쫓아 다니지 않았어. 언니는 너무 인간들을 쓸데없이 죽이는 거 같아.”

“무슨 소리야? 인간들이란 많이 죽일수록 좋은 존재들이야. 저 인간들의 내면을 봐봐. 얼마나 추악한지. 서로 속이고 속고, 죽이고 이간질하고. 오늘 죽인 인간들도 살 가치가 없는 녀석들이야.



네가 천년호로 부활하는 그믐날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이란 족속은
멸종 하는 거야.”

“언니! 살 가치가 있고 없고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야.”

다시 인간으로 돌아 온 처자는 하염없이 달을 보며 자리를 떠날
줄을 몰랐어요. 마치 자신의 앞곳은 운명을 탓하기라도 하듯이
말이지요.

“임자? 요사이 무슨 일 있는가? 얼굴색도 안 좋고 한숨만 쉬고.
내 맘이 답답하니 속 시원히 말 좀 하시구려.”

“아녀, 요즘 몸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
늘도 일찍 들어오실 거죠?”

“안되겠소. 오늘은 장에 가서 임자 약 한 첩 지어 와야겠소. 오
늘은 좀 늦을 것이니 먼저 주무시구려.”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는 힘없이 걸어가는 덕칠이에게 누군가가
다가갔어요.

“이보시게 젊은이. 나 좀 보시게.”

올려다보니 털가죽 옷에 어깨에 활을 멘 본새가 보아하니 사냥

꾼 같았어요.

“왜 그러시요? 저한테 무슨 불 일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새겨들게나. 자네가 몇 달 전에 서낭고
개에서 젊은 처자를 만나 같이 살고 있다는 덕칠인가?”

“그렇소만?”

“자네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색시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꼬
리 아홉 달린 구미호지. 아마 자네를 노리고 들어온 것일 게야.”

덕칠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재빨리 도망갔어요.

“아니 이보게 어딜 가는 젠가? 끝까지 들어보게.”

“아저씨 무슨 소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착한 색시 보고 여우라
니. 울 어무이를 얼마나 잘 모시는데, 그런 소리 하면 천벌을 받
을 것이에요.”

“아, 이 순진한 사람하곤. 말이 안 통하네 그러. 그럼 속는 셈치
고 이거나 가져가게.”

그러며 내주는 것은 토끼의 시체가 아닌가?

“이걸 오늘밤 자정을 넘긴 후에 색시 머리맡에 몰래 놔두게. 그



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시게.”

덕칠인 얼토당토한 말을 하는 사냥꾼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지한 그의 태도에 토끼고기를 받아 올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덕칠인 고민 고민하다 색시가 잠든 머리맡에 토끼를 슬그머니 놔두고 밖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흘렸을까 덕칠인 색시를 의심한 자신을 탓하며 토끼를 치우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색시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덕칠인 문틈으로 방안을 엿보다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방 안에서 붉은 여우 한 마리가 토끼 시체를 잡고는 게걸스럽게 뜯어먹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우의 꼬리는 정확히 아홉 개. 백년마다 한 개씩 자란다는 그 구미호의 꼬리였지요. 여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덕칠이는 어무이 생각을 하면서 숲으로 냇다 달려갔어요.

“어무이가 위험해. 차라리 내가 여우를 유인하는 것이 좋겠구나. 올 어무이는 절대 돌아가시게 해서는 안 돼.”



그때 뒤에서 따라오는 하얀 그림자가 있었으니 백여우였어요.
덕칠이를 낚아채려는 순간 누군가에 의해 떠밀렸지요.

“캐갱, 누구냐? 감히 나를 밀치는 것이?”

“언니, 서방님은 내가 처리할거야. 언니는 가만히 있어.”

“아니 서방님은 무슨 일어 죽을 놈의 서방이야? 오늘이 지나면 죽을 목숨인데. 어서 간을 빼 오거라. 이미 붉은 달이 중천에 떠있어.”

덕칠이는 달리다 지쳐 서낭고개에 다다르자 풀썩 쓰러졌어요.
이미 그 앞엔 붉은 구미호가 바라보고 있었지요.

“간을 내놓거라. 내 이 간을 얻고자 천 년을 기다려왔다. 도망가 봤자 소용없다.”

“임자, 나는 백번 죽어도 상관없지만, 다만 내가 죽으면 홀로 되실 올 어무이만은 죽을 때까지 보살펴 드린다고 약속 하나만 해주구려. 부탁이요.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시다 늙으신 분이시오. 그래도 임자 덕에 나와 올 어무니 이만큼 잘 살아왔구려. 임자 아니었으면 사람구실도 못했을 나인데 말이요. 고맙구려. 이



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소. 자 어서 내 간을 가져가시오. 그리고 부디 내 부탁은 잊지 마시구려.”

이렇게 말하고 덕칠이는 가슴팍을 열어 채졌어요. 붉은 구미호는 다가서다가 차마 간을 빼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곤 나지 막이 울조리지요.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 정이로구나.”

“이놈 게 섰거라. 내 처자식의 원수.” 어디선가 나타난 사냥꾼은 활시위를 당기려고 하고 있어요.

“활을 멈추시오. 임자 어서 도망가. 어서. 쏘지 마시오. 내 색시란 말이요. 울 엄니 지켜준다고 나랑 약속했던 말이요.”

“비켜라. 내 가족의 원수란 말이다. 썩 비켜라.”

“뭔가 잘못 아신 것이 아니요.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요.”

화살은 이미 활시위를 떠났어요.

‘핑’

“위험해. 비켜.”

덕칠이는 몸이 떠밀리며 옆으로 넘어졌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덕칠 대신 화살을 가슴팍에 맞은 구미호가 쓰러졌어요.

길게 휘어진 발톱은 달빛에 물들어 더욱 빛이 났지요. 사냥꾼의 다음 활시위가 당겨지기도 전에 이미 백여우의 발톱이 가슴을 향해 파고드는 순간 백여우는 붉은 구미호의 의해 튕겨져 나가고 붉은 구미호도 그 충격으로 옆으로 쓰러졌지요.

“임자, 임자. 죽지말구 어서 내 간을 먹으란 말이요.”

덕칠이는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져 있는 구미호를 감싸 안았어요.

“너 미쳤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어서 간을 빼서 먹어.”

“언니 이제 그만하자. 무의미한 살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이제 저주의 고리를 다 끊고 그만 흠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 때는 지아비로 모신 분, 너무 착하고 효심이 깊어 도저히 난 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어머니와 서방님을 모시고 산 짧은 세월이 몇 백년의 삶보다 더 즐거웠어. 난 더 이상 여한이 없어.”

붉은 구미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인간과의 짧은 연이 우리 일족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단 말이나?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인간과의 삶이로구나.”

백여우는 애처로이 동생을 바라보고는 숲으로 사라져갔어요. 사냥꾼도 어차피 숨이 끊어질 여우를 보고는 더 이상 쏘지 못하고 고개 아래로 내려갔어요.

“서방님, 부디 어머니 잘 되시고 제 뉘까지 잘 사셔야 해요. 죄송해요. 끝까지 같이 살지 못해서 어머니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덕칠이는 품안에서 죽어가는 색시를 바라보며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두근거리는 맘으로 처음 색시를 보며 향긋한 냄

새를 맡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덕칠이는 색시를 서낭당 옆에 정성스럽게 묻어주고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더욱 지극으로 모시고, 매년 여우가 죽은 날을 기렸다고 해요. 현재 이 서낭고개는 이름은 남아 있지만,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어 길의 흔적만 남아 있고 서낭당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온가족이 함께 읽는

김포의 예이자기

07

예쁜이와 버들이

예쁜이와 뼈들이

몸이 약했던 예쁜이의 엄마는 삼 년 전 추운 겨울에 무리하게 산을 넘다 병을 얻어 그만 돌아 가셨어요. 고기 잡는 어부인 예쁜이의 아빠는 아내가 죽자 일을 포기하고 매일매일 술로 슬픔을 달래기 일쑤였지요.

그러다 지금의 의붓어미를 만나고부터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의붓어미는 본래 천성이 욕심이 많고 못된 여자라 매일 매일 예쁜이 아빠가 고기를 잡아 돈을 벌기를 원했어요.

어느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의붓어미의 닦달로 예쁜이 아빠만 고길 잡으려 높은 파도를 뚫고 가다가 그만 배가 뒤집혀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지요.

예쁜이는 너무 슬펐어요. 의붓어미는 그때부터 예쁜이를 구박





하기 시작했지요.

살을 에는 바람이 부는 한 겨울이었어요. 의붓어미는 장작불을 지피고 온 예쁜이를 부르더니 말을 했어요.

“예쁜아!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구나. 내가 너와 같이 살이주잖니? 그러면 보답을 해야지. 산에 가서 딸기 좀 따오너라.”

예쁜이는 말했어요.

“이 추운 겨울에 어디 가서 딸기를 가져오나요?”

그러자 의붓어미는 예쁜이를 매섭게 쏘아 보며 말을 했지요.

“아니 버릇없이 어디서 말대꾸야. 먹이고 입혀 줬더니 보답이 이거구나. 그래, 딸기를 따오기 싫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예쁜이는 엄마, 아빠의 추억이 있는 이 집에서 쫓겨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광주리를 옆에 끼고 딸기를 구하려 나갈 수밖에 없었지요.

이리저리 헤치고 터진 무명옷 사이로 매서운 겨울의 칼바람이 들어왔어요. 예쁜이는 옷을 부여잡고 몸을 최대한 오므리고는 산을 헤매기 시작했지요. 이 엄동설한에 어디 가서 딸기를 구하겠어요? 산짐승들도 풀 한포기 없어 굶어죽는 마당에….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온 몸은 굳어가고 손에 감각도 점점 사라져갔지요. 옷을 부여잡은 손에도 어느덧 눈이 쌓이고 다리를 옮기기조차 버거웠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앞쪽의 땅이 폭 꺼지



면서 예쁜이는 아래로 미끄러져갔어요. 한 참을 미끄러지다가 '쿵' 하고 부딪히며 멈춰 섰어요. 정신이 점점 멍해져왔어요.

“여기서 이제 죽는가 보구나.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너무 추워. 졸린다. 졸려.”

“예쁜아! 그만 일어나야지.”

어디선가 엄마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예쁜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예쁜아! 눈을 뜨거라. 엄마는 하늘에서 항상 예쁜이를 지켜보고 있단다. 힘을 내렴.”

엄마는 점점 하늘로 사라져 갔어요.

예쁜이는 엄마를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눈을 떴어요. 눈물을 훔치고 주위를 둘러보니 커다란 동굴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눈이 쌓인 동굴 입구가 무너지며 미끄러져 들어 온 것이었지요. 예쁜이는 동굴 저편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향기로운 미풍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은 동굴 안으로 점점 향해 갔어요. 몸이 녹으니 마음까지 편안해져 왔지요. 한참을 들어가자 한 줄기 빛이 꺾여 들어오는 굴의 끝이 보였어요. 한발 한발 조심스레 다가가던 예쁜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지요. 시야가 확 트이며 온갖 이름 모를 야생화가 피어 있고 푸른 풀들로 덮인 너른 들판이 짝 펼쳐져 있는 것이었어요.

한 쪽으론 개울이 돌돌돌 흐르고 있고 노루 몇 마리가 한가로이 물을 마시고 있었지요. 그 순간 예쁜이의 눈에 확 들어 온 것이 있었으니 빨간 몸에 검은 주근깨가 가득 박혀 있는 바로 딸기였어요. 예쁜이는 광주리에 딸기를 그득 담았어요.

“안녕! 난 버들이라고 해. 네 이름은 머니?”

정신없이 딸기를 따던 예쁜이는 뒤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화들짝 뒤를 돌아보니 자기 또래의 사내아이가 또랑또랑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 난 임자 없는 딸긴 줄 알았어. 여긴 네 집인가 보구나. 난 예뿐이라고 해.”





예쁜이는 주인 허락 없이 딸기를 딴 것이 몹시 미안했어요. 버들이는 말했어요.

"아니야, 여기선 네 마음껏 지내렴. 나도 혼자 심심했는데 잘 됐다. 다음에도 또 놀러오렴. 난 언제든지 환영이야. 다음에 올 때는 굴 입구에서 이렇게 말을 해라. 버들이! 버들이! 예쁜이가 왔으니 문 좀 열어주렴. 그러면 내가 마중을 나갈 거야. 알았지?"

버들이는 예쁜이를 데리고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밥에 나물에 생선에 진수성찬을 차려 주었지요. 예쁜이는 정말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마음이 편해짐을 느꼈어요.

“버들아! 나 이제 그만 가 봐야 해. 늦게 가면 엄마가 화 내실 거야. 담에 또 놀러 올게.”

예쁜이는 더 있고 싶었지만 집에 가야만 했어요. 버들이도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예쁜이에게 말했어요.

“예쁜아, 밖은 추우니 노루를 타고 가렴. 금방 집까지 데려다 줄 거야.”

버들이는 한 마리의 커다란 노루를 데리고 오더니만 예쁜이를 번쩍 안아서 등에 태웠어요. 노루는 예쁜이를 태우고 바람같이 눈길을 달려 어느새 집 앞에 도착을 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의붓어미는 딸기를 당연히 못 따올 줄 알았던 예쁜이가 딸기를 가득 가져오고 게다가 일어 죽지도 않고 돌아 온 것을 보고는 잠



짜 놀랐어요.

“오냐, 그래. 들어가거라.”

의붓어미는 예쁜이가 수상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얼어 죽거나 돌아오더라도 꼬투리를 잡아 내쫓을 라고 했더니만 진짜 이 겨울에 딸기를 구해오다니. 뭔가 수상쩍은 걸.”

며칠이 지나서 해가 누엿누엿 서산으로 지날 때였어요. 의붓어미는 예쁜이를 불러 말을 했지요.

“저번에 가져 온 딸기를 다 먹고 보니 이제는 수박이 먹고 싶구나. 수박을 구해오너라.”

예쁜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박을 구해 올게요.”

그리고는 광주리를 옆에 끼고 산으로 달려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의붓어미는 생각했지요.

“뭔가 수상해. 한 마디 대꾸도 안하고 저리 신나서 수박을 구하러 가다니. 두고 보자. 내 꼭 알아내고 말테다.”

예쁜이는 벌써 굴 입구에 도착했어요.

“버들아! 버들아! 예쁜이가 왔으니 문 좀 열어주렴.”

말이 끝나자 돌문이 열리면서 버들이가 반갑게 예쁜이를 맞이해 주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오두막으로 가서 밥도 먹고 풀밭에 드러누워 잠도 자고 개울에서 물장난도 치면서 즐겁게 하루를 보냈지요. 예쁜이가 집으로 갈 시간이 되자 버들은 예쁜이에게 말을 했어요.

“자! 이거 받아라.”

버들이가 내민 것은 작은 세 개의 병이었어요.

“이 세 개의 병 속에는 생명수가 들어 있어. 첫 번째 하얀색 병은 죽은 사람의 뼈에 살이 돋게 만드는 물이고, 두 번째 붉은색 병은 피와 혈관을 만드는 병이고, 마지막으로 이 푸른색 병은 생명의 정기를 불어 넣어주는 물이야. 이 병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쓰도록 해.”

예쁜이는 수박을 가지고 노루 등에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다시 오마 약속을 하고는 집을 향해 달려갔어요. 수박을 들고 온 예쁜



이를 본 의붓어미는 이번에도 놀랐으나 짐짓 모른 척 하고는 말을 했지요.

“그래, 수고 했다. 다음번엔 참의를 따라지고 오너라.”

의붓어미는 속으로 생각 했어요.

“내 이번엔 예쁜이의 뒤를 밟아 봐야겠어. 산 속에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있는 게야.”

며칠 뒤, 예쁜이는 아무 것도 모른 채 광주리를 옆에 끼고 버들이의 굴 앞으로 갔어요. 의붓어미는 예쁜이가 눈치 채지 못하게 살금살금 뒤를 따라가고 있었지요.

“이런 산 중에 저런 바위굴이 있을 줄이야. 혹시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굴 아니야?”

의붓어미는 속으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버들아! 버들아! 예쁜이가 왔으니 문 좀 열어주렴.”

바위굴이 열리며 오늘도 버들이가 나와서 반갑게 맞아 주었지요.

“굴 안에 사람이 살고 있네. 저 녀석이 굴의 주인인가 보군. 잘 됐어. 어린 아이잖아! 호호호. 저 녀석만 없으면 동굴 안에 금은

보화는 다 내 차지야.”

심술 맞은 의붓어미는 부자가 된다는 생각에 추운 것도 몰랐어요. 예쁜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시간이 흘러 예쁜이가 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는 노루를 타더니 만 산 아래로 바람같이 달려가는 것이 보였어요.

“알미운 계집애가 노루를 타고 가네. 금은보화를 다 차지하면 저 놈의 노루도 잡아서 구워 먹어야지.”

의붓어미는 굴 앞으로 가서는 코를 부여잡고 예쁜이의 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말을 했어요.

“버들아! 버들아! 나 예쁜이야! 문 좀 열어 주렴. 추워 죽겠어. 어서 문을 열어 주렴.”

그러자 잠시 후에 돌문이 덜컥 열리는 것이었어요. 의붓어미는 옆에 있던 나무 몽둥이를 집어서는 버들이가 머리를 내미는 순간 그대로 내리쳤어요. 버들이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의붓어미는 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보물을 찾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넓은 들판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예쁜이 고 계집애가 여기서 과일
을 따가지고 오는 것이었구나. 그나저나 보아하니 인간의 세상은
아닌 듯하니,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을 거야.”

의붓어미는 토끼처럼 눈이 별게져 가지고는 보물을 찾는데 혈
안이 돼 있었어요.

오두막도 뒤져보고 온 들판을 돌아다녔지만 보이는 것은 온통
꽃과 나무뿐이었지요. 의붓어미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금은보화는커녕 동전 한 닢도 없구나. 예쁜이 고것이 다시는
오지 못하게 전부 불 질러 태워버려야겠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자는 이리저리 불을 놓기 시작했어요. 순
식간에 들판이고 오두막이고 불바다로 변해갔어요. 그리고는 불
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 자리를 재빨리 피해 버렸어
요. 참 못된 여자지요?

아무 일도 없는 듯 집으로 돌아온 의붓어미는 예쁜이를 불러서
말을 했어요.

“전에 먹었던 딸기가 또 먹고 싶구나. 날 위해서 이번에도 기줄 수 있겠느냐?”

예쁜이는 버들이를 만나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흐뭇해졌어요.

“동굴이 홀랑 다 타버렸으니 이제는 무슨 수로 딸기를 따오겠어. 이번에야 말로 꼬투리를 잡아서 이 집에서 내쫓아야겠다.”

예쁜이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아직 겨울이지만 오늘은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버들아! 버들아! 나 예쁜이야. 문 좀 열어주렴.”

이상하지요? 한참을 기다려도 문이 열릴 생각을 안 하네요.

“이상한 걸.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열리지 않는 문을 보고는 이상한 생각이 든 예쁜이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돌 틈을 벌리려고 애를 썼어요.

“조금만 더 열려라. 조금만 더. 어영 차.”

워낙 덩치가 작은 예쁜이라 약간의 틈만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간신히 좁은 틈으로 들어온 예쁜이는 깜짝 놀랐어요. 시커먼 그
음미 번진 동굴은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전에 불어왔던
향기로운 바람은 온데간데없고, 매캐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
르고 있었어요.

“버들아! 버들아! 너 어디 있니?”

이리저리 버들을 찾아보았으나 온통 시커멓게 변한 나무들과
집만이 덩그러니 있었지요. 그러다가 예쁜이는 타다 남은 재속에
서 버들의 하얀 뼈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된 거니? 버들아. 엉엉엉-”

한참을 녀을 놓고 울다가 예쁜이는 문득 버들이가 준 병이 생각
났어요. 예쁜이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서 병을 들고 달려왔어
요. 의붓어미는 아랫목에서 배를 깔고 졸다가 예쁜이가 이상한
병을 들고 후다닥 나가는 것을 보고는 중얼거렸어요.

“아니! 저 영악한 것이 나 몰래 보물을 숨기고 있었구나. 가서
뺏어야겠다.”

예쁜이는 너무 빨리 달려 숨이 턱에 차올랐지만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품속에서 하얀 병을 꺼내신 버들이의 뼈에 살살 뿌렸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얀 뼈가 꿈틀꿈틀 거리더니 울룩불룩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 팔부터 살과 근육이 붙기 시작하더니 점점 머리, 가슴으로 번져갔지요.

이번엔 붉은 병을 꺼내 살이 붙은 몸에 살살 뿌렸어요. 푸른색의 정맥과 붉은색의 동맥이 마치 비온 후에 죽순처럼 쪽쪽 뻗더니만 온몸 구석구석 퍼져가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어요. 버들이의 몸은 이제 예전 모습을 되찾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푸른색 병으로 생명의 정기를 불어 넣을 차례였어요. 병을 열자 '후욱' 하는 소리와 함께 버들이는 숨을 들이키며 눈을 떴어요.

“예쁜아! 네가 날 살려줬구나.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기뻐하며 두 손을 마주 잡고 덩실덩실 춤을 쳤어요. 잠시 후 버들이가 말을 했어요.

“예쁜아! 나와 같이 네 어머니가 계신 하늘나라로 가서 같이 살자꾸나. 그곳은 나쁜 의붓어미도 올 수 없는 평화로운 곳이야.”





예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굴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버들이
가 만들어 놓은 무지개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아니! 이것들이 나를 놔두고 어딜 가는 거야? 그렇지. 하늘엔
금은보화가 많을 거야.”

의붓어미가 험레벌떡 뛰어와서는 무지개다리를 타고 쫓아오는
것이었어요. 어느덧 예쁜이와 버들이는 구름 저편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그만 무지개다리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지요. 의붓어미는
어찌 됐을까요?

무지개다리가 없어져 버린 후 그만 땅으로 떨어져 눈발에 파묻
혀 죽고 말았어요. 나쁜 사람은 언젠간 반드시 벌을 받기 마련이
지요. 하늘로 올라간 예쁜이는 엄마와 버들과 행복하게 살았다
고 하네요.





온가족이 함께 읽는

김포의 옛이야기

08

여우재고개

여우개고개

조현은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글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맘 편히 할 수 있는 넉넉한 사정은 아니었지만 곳곳하게 학업을 계속해 나갔지요.

그 당시 조현이 살던 작은 마을에는 글방이 없어서 고개를 넘어 이웃 마을에 있는 글방까지 걸어 다녀야 했어요. 매일 밤마다 고개를 넘느라 힘이 들고 여우가 나온다는 말에 약간은 무서웠지만 공부하러가는 재미에 폭 빠져 힘든 줄을 몰랐어요.

보름달이 뜬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글방에 가느라 평소처럼 고개를 넘어가는데 예쁘장하게 생긴 처녀가 나타나서 조현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도련님! 도련님! 그렇게 바쁘게 어디를 가세요?”



조현은 약간은 무서웠지만 여자를 향해 대답을 했지요.

“공부하러 글방에 가는 길인데요. 무슨 일이신지?”

“도련님, 오늘은 그렇게 서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스승님은 급한 불일이 생겨 친척집에 가서서 오늘 수업은 많이 늦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놀다가 천천히 가세요.”

처녀는 조현을 숲 속으로 데리고 가서 나무 그늘 밑에 앉히고는 이런 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녀는 조현이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조현을 껴안고는 입을 맞추었어요. 그런데 처녀는 입을 맞출 때 입에 구슬을 머금은 채 있다가 구슬을 조현의 입에 넣어 주고 다시 제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조현은 태어나서 처음 당하는 일이었지만 처녀와의 입맞춤이 싫지는 않았어요. 입을 맞출 때면 야릇한 느낌이 들어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이 기분이 사뭇 좋았거든요.

조현은 처녀와 놀다가 뒤늦게 글방에 갔으나 처녀의 말대로 스승님은 친척집에 가고 없었으며 스승님이 돌아온 것은 한참 뒤였

지요.

이튿날에도 조현은 고갯길에서 처녀를 만났고 처녀는 반갑다는 듯 조현을 껴안고는 또 입을 맞추었어요. 물론 이때도 입 안의 구슬을 조현의 입에 넣어 주었다가 다시 제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지요.

그 후 조현은 글방 가는 길에 처녀를 만났으며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러한 일이 계속 벌어지자 낮에는 공부에 시달리고 밤에는 처녀한테 시달림을 받아 안색이 창백하고 몸이 여위어 물골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글방 스승님이 조현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만 “요사이 안색이 안 좋은데 네게 요즘 무슨 일이 있더냐?”

조현은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가 스승님이 계속 다그치자 할 수 없이 글방에 올 적마다 고갯길에서 어떤 처녀를 만난 이야기와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스승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조현에게 말을 했어요.



“흠, 이것은 필시 백년 묵은 여우의 짓이 분명하구나. 입을 맞출 때마다 네 정기를 빼앗아 가고 있는 게야.”

조현은 스승님의 말을 듣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처녀를 다시 만나면 모르는 척 입을 맞추고 구슬이 입에 들어오거든 입을 꼭 다문 채 무조건 도망쳐라. 내 말 명심하였느냐?”

조현은 그러리라 다짐을 하고 집으로 갔어요.

다음 날 조현은 스승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고갯길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처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현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리고는 처녀는 늘 그래 왔듯이 조현을 와락 껴안고는 입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입 안에 구슬이 들어오자 조현은 입을 꼭 다물고 구슬을 입에 문 채 글방 쪽으로 무조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처녀는 조현의 예상지 못한 행동에 깜짝 놀라며 헐레벌떡 조현의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조헌에게 달려들어 구슬을 뺏어내게 하려고 조헌의 입을 강제로 벌리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나 조헌이 완강하게 저항을 하자 입을 때린다는 것이 실수로 조헌의 엉덩이를 후려치는 바람에 입에 물었던 구슬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말았고 치녀는 '캐깅' 외마디 울음을 터뜨리며 하얀 여우로 변하여 숲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스승에게 오늘 있었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스승은 그 구슬을 가져왔거든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조헌은 스승에게 말했어요.

“여우에게 그 구슬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옥신각신하다가 삼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조현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낸 천재(하늘의 재앙)로고! 정말 아까운 보물이 사라졌구나. 너는 여우의 구슬을 삼켰으니, 이제부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지 못해도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훤히 알게 될 것이야. 그 처녀는 원래 여우인데 사람의 정기를 빼앗아 먹고 사람이 되려고 너한테 달려들어서 네 정기를 빼앗아 먹던 중이었지. 이제는 헛수고가 되어 다시 여우로 돌아가 버린 게야.”

어린 조현은 아까운 보물이 사라졌다는 스승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부터 여우도 나타나지 않고 중봉의 학문은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알아 일취월장하여 24세에 성균관인 태학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그 후 율곡 이이를 스승으로 모시고 성혼, 정철, 토정 이지함과

친하게 지내는 동안 조현의 학문은 당대에 명성이 높아져만 갔어요. 특히 이지함과 교분이 두텁고 강직한 성품과 충절로 이름이 드높았지요.

그러던 중 통진 현감 때 실수로 인해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유성이 흐르는 것을 본 이지함은 조현에게 앞으로 십 오 년 후에는 이 나라에 피바람이 뻗치겠다고 예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는 조현도 앞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로 쳐들어 올 것을 예견하고, 전쟁을 대비하라는 상소를 올렸어요.

그러나 조정에서 받아주지 않을 뿐더러 실성한 사람으로 돌리니, 도끼를 지니고 땃들에 머리를 받아 유혈이 낭자하여 애원하였으나 전혀 받아주지 않았지요. 그러자 토정선생이 예언한 대로 임진년에 왜병이 쳐들어오니, 왕은 평양으로 피신을 하고 한양성은 불바다가 되었지요.

조현은 영규대사와 같이 의병을 일으켜 빼앗긴 청주성을 탈환하고, 금산전투에서 판군의 배신으로 고립되어 이를 사수코자 분전하였어요. 그러나 역부족으로 조현은 아들 완기, 영규대사와



더불어 부하 병사 칠백 명과 함께 장렬한 전사를 하기에 이르렀지요. 이들이 묻힌 이곳이 바로 금산의 칠백의총이에요.

그 후 나라에선 조헌에게 영의정의 벼슬을 내렸고 금산군 종용 사에는 그 때 돌아가신 칠백의병의 위패가 모셔져 매년 나라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중봉선생의 구술과 관련 된 일화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언젠가 조헌은 팔도강산을 두루 유람하다가 강원도 금강산에 들르게 되었어요. 어느 높은 산마루 아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그는 바위 위의 한 암자를 발견하고는 가까이 다가가 냇물 옆에 지팡이를 세우고 난간에 의지하여 금강산의 석양을 즐기다가 피곤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져 들었어요.

얼마 뒤 몇 명의 중들이 나와 법당을 분주히 오가며 병풍과 자리를 갖다놓고 무슨 준비를 하는 것이 보였어요. 조헌은 중들의 행동이 궁금하게 생각되어 물어보았어요.



“지금 전국 명산의 산신령들이 나라에 일이 생긴 것을 걱정하여 이곳으로 오고 있나이다.”

과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등불이 휘황하게 비치는 가운데 여러 산신령들이 차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먼저 온 삼각산의 신령이 지리산의 신령에게 말하었어요.



“요즘 하늘을 보니 장수별의 움직임이 정상이 아닌데 남에서 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니 남쪽에서 무슨 사변이 생길 듯하오. 이것은 외국의 요사스러운 기운이 동남쪽으로 해서 온다는 것이 아니겠소?”

지리산 신령이 곧바로 말을 이어받았어요.

“비단 별의 움직임뿐 아니라 사람들의 일에도 염려되는 바가 있으니 남쪽 오랑캐가 날뛰는 것이 날로 심해지고 있소. 그런데 조정에서는 잔치만 열고 매일 놀고 있으니 나라가 망할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이 말을 듣고 있던 금강산 신령이 매우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예요.

“조선은 자고로 동방예의지국이요, 우리는 이 나라에 살면서 재물을 받아먹고 있으니 우리 또한 예의지신인 셈이지요. 저 남쪽의 왜는 짐승의 나라인데, 그 추악한 오랑캐가 이 나라에 들어와 살게 되면 우리 또한 짐승의 신이 되고 말 것이니, 어찌 아니 부끄럽고 망신스럽지 않을 수 있겠소? 그러니 이 자리에 모인 제공

들이 제가꿈 깊이 생각하여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듯싶소.”

산신령들은 모임을 마치더니 서로 손을 흔들어 가볍게 인사를 하고 물러가는 것이었어요.

이 때 조현이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당초에 지팡이를 세워 두었던 곳은 바위 모서리였고, 몸을 의지하였던 곳은 한 그루의 소나무였어요. 그리고 흰히 비치던 등불은 봉우리 위에 걸려 있는 세 벽달이 비추는 것이었지요.

그는 비로소 그것이 꿈임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는 단순한 꿈이 아닌, 꿈을 통해 뭔가를 암시해 준 것으로 받아 들였지요. 이때부터 그는 앞날에 반드시 왜놈들이 변란을 꾀할 것이라고 확신하였지요. 그리고는 전쟁에 관한 많은 암시를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어요.

이렇듯 조현은 어릴 적 여우구슬을 삼켰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흰히 꿰뚫고 있었던 것이지요.

경기도 김포 감정리에 있는 이 고개는, 조현이 어린 시절 여우를 만난 곳이라 해서 '여우재고개' 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온가족이 함께 읽는

김포의 옛이야기

09

신기한 돌부처

신기한 돌부처

갑자기 하늘에 천둥이 치고 문풍지가 흔들리는 바람에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순간 이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색영롱한 안개 속에 일곱 색의 선명한 무지개가 자신의 집을 향해 뻗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씨는 자신도 모르는 새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방으로 들어와 정좌한 후 밖을 보았어요. 이번에는 아름다운 풍악이 울리는 가운데 미륵부처님이 일곱 선녀의 부축을 받으며 자신을 향해 오고 있었어요. 이씨는 얼른 일어났어요.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부처님 일행이 마당에 도착하자 이씨는 합장 삼배를 올렸어요.

“그대가 바로 불심이 지극하다는 이씨요?”





이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어요.

“예, 그러하옵니다.”

미륵부처님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 이렇게 왔소. 나는 지금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루 속히 나를 구하고 잘 안치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어요.

“어느 곳에 계시오며 무슨 사연인지 알았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마을 지주가 잘 알고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이렇듯 간곡히 당부의 말을 남긴 미륵부처님은 안개를 일으키며 서쪽 하늘로 사라졌어요. 합장한 채 부처님이 사라진 쪽을 한 동안 바라보던 이씨는 부처님을 하루 속히 구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형님, 일어날 시간입니다.”

부처님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었던 이씨는 동생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었어요.

“거참, 이상한 꿈이로구나.”

이씨는 마치 꿈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문밖으로 나와 부처님이 사라진 서쪽과 무지개가 피어오르던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어





면 흔적도 남아 있을 리가 없는 하늘이었지요. 아무래도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씨는 간밤의 꿈 이야기를 마을 원님에게 고하고는 지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어요.

“흠, 내 생각도 그러하다. 내 꿈 지주에게 사람을 보낼 것이니 답을 기다리도록 하라.”

원님은 이씨에게 말했어요. 얼마 후에 지주를 만나러 간 이씨는 꿈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상세히 말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지주는 점점 놀라며 말을 하었어요.

“아니! 사흘 전 내가 꾸 꿈과 흡사한 꿈을 너도 꾸다니.”

이씨가 부처님을 꿈에서 만나던 날 밤이었어요. 지주는 깊은 잠 속에 스르륵 방문 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장삼이 온



통 흙탕물에 젖은 스님 한 분이 바로 옆에 와서 앉은 것이었어요. 놀란 지주는 스님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 내리고 있었고 목에는 파란 이끼가 끼어 있는 것이었어요.

“너무 놀라지 마시오. 내 지금 서쪽 깊은 늪에 빠져 헤어날 길이 없어 도움을 청하려 이렇게 왔으니 귀찮게 여기지 말고 힘껏 도와주세요.”

말을 마친 스님은 홀연히 서쪽으로 사라졌어요. 지주는 서쪽을 향해 합장하며 머리를 조아리다 그만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게 생각하던 중 이씨의 방문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지주는 그날로 사람을 풀어 서쪽 큰 늪을 조사하도록 했어요.

이씨와 하인들이 늪으로 가보니 황량한 개울 하나가 있는데 그 주변에 머리 부분이 밖으로 삐죽 나와 있는 돌부처 하나가 흙과 잡초에 묻혀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씨는 급히 그 개울로 달려갔어요. 가서보니 낚시꾼들이 석불을 의자삼아 걸터앉아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씨는 낚시꾼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리 흠에 묻혀 있을지언정 부처님이시거든 그토록 무례할 수가 있소?”

“살펴보지 않아 미처 몰랐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요.”

늑시꾼들은 무안하여 얼굴을 붉히며 도구를 챙겨든 채 총총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씨는 조심스럽게 돌부처를 파내었어요. 석불은 이마 부분이 손상되어 있었어요. 마을로 석불을 가져 온 이씨는 사당을 짓고 고이 모셨지요. 석불 근처에는 물 맛 좋은 웅달샘이 있어 산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었고 불자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았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못 생긴 돌부처 앞에서 있다.
명산대찰
호화로운 절간에 계시는
잘 생긴 미남 금부처와 달리
조금 비뚤어진 코



일그리진 눈매
바보스런 웃음을 웃고 있는 돌부처
어떤 실패한 땡초가
여기에다 제 얼굴 닮은
못 생긴 돌부처를 만들어 세웠을까.
쫓겨 온 사나이
저승까지 쫓아오는
지긋지긋한 양반나리
그 줄개들 포졸이 무서워
산중 깊이 공공 숨어
초승달빛 아래서 새겼을까.
슬픈 일 많은 사람들
내 앞에 오라
오줌이 마려우면
그대로 쉬어도 하시라
잘난 놈들 무서워



항상 외로운 사람들
술 한 잔 걸치고 울고 싶은 사람들
외로워, 외로워 사람의 살 그리우면
내 앞에 서서 손뼉 치며 끼이끼이 울어라.
못 생긴 돌부처는 두 눈을 껌뻍껌뻍
자꾸만 날 아는 체 한다.

이씨가 죽고 나서 한참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돌부처를 모신 마을에 열 두어 살 먹은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가끔 돌부처가 있는 곳에 와서 놀면서 옹달샘에서 물도 먹고 가곤 했어요. 조상 대대로 절을 찾았던 집안이라서 아이의 어머니도 평소 절을 자주 찾아 아들의 장래를 빌던 사람이었지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이곳의 돌부처만 보면 절을 하며 착한 심성을 길러갔어요. 어느 날, 아이는 혼자서 돌부처를 찾아갔어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미륵 돌부처에게 인사를 했어요. 평상시 아이의 눈에 엄숙하고 무겁게

느껴지던 돌부처의 모습이 그날따라 너무 인자하고 자상하게만 보였어요.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얼른 가서 돌부처를 가슴에 안았어요. 순간 돌부처의 머리가 땅에 떨어져 데굴데굴 굴러가는 것이었어요. 너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겁을 먹은 아이는 자리를 급히 떠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 마음을 진정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큰 일이 난 듯싶었어요. 돌부처를 좀 안아 본 것인데 어찌 목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기이하고 겁이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께 그 일을 털어 놓았어요. 어머니도 깜짝 놀라며 당황하셨지요. 이것은 필연코 무슨 일이 일어날 징조임에 틀림이 없다고 어머니는 생각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근방에서 공력이 높기로 소문난 노승을 찾아갔어요.

“오늘 어디서 놀았느냐?”

“예, 웅달샘 근처에서 놀았어요.”

“그럼 부처가 어땀하더냐?”



“돌부처님이 오늘따라 인자해보여서 만져도 보고 좀 안아 보았는데 그 순간 부처님의 머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노승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아, 그래. 걱정할 것 없다. 이것은 행운의 징조이니 마음을 놓아라. 부처님의 머리가 떨어진 것은 이 근방은 모두가 명당인데 땅의 신이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 시험하려고 힘을 한 번 써 본 것이니라. 너는 내일 목욕재계하고 밤을 이용하여 떨어진 부처님의 머리를 들고 가서 본래 그대로 붙이도록 하거라. 아마 제 자리에 갖다 놓으면 잘 붙을 것이니라.”

아이는 다음 날 몸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와 함께 돌부처를 찾아갔어요. 떨어진 돌부처의 머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달빛에 돌부처의 목에서 흘러내린 핏자국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이가 떨어진 돌부처의 머리를 제 자리에 갖다 놓자마자 흔적도 없이 붙어 버렸어요. 모자는 돌부처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땅의 신에게도 기도를 했어요.

많은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웅달샘 근처에 묘를



한 아들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큰 부자로 살았다고 해요.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1920년 가현리 750번지에 사는 이인두씨가 딸만 셋을 두고 아들이 없어 늘 근심에 쌓여 아들을 소원하던 차에 이 미륵당에서 동북쪽으로 100m 떨어진 웅달샘에서 목욕재계하고 물을 길어다 밥을 짓고 정화수를 떠놓고 보름동안 지성을 드린 후 옥동자를 낳아 충향이라 했고, 2년 후 또 낳아 효향이라 지었다고 하네요.

그리하여 이인두씨는 그 후 정월대보름에 이 미륵당에서 지성을 드리고 이 집을 잘 관리하여 왔어요.

한편 1920년경에는 이 마을 이하빔이란 짓곳은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의 형제가 돌부처의 앞가슴을 돌로 무수히 때리고 나서 그날 밤 자고 일어나니 그들의 앞가슴이 부어올라 3일간 고생을 하였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어요.

옛날 미륵당은 초가였는데 풍우에 퇴락해 1981년 9월 광주 이씨 문중에서 1.5평 블록벽체에 슬레이트를 얹은 건물로 신축해서 현재 잘 보존되고 있어요.





온가족이 함께 읽는

김포의 옛이야기

10

도선과 엄나무

도선과 엄나무



조선시대에는 땅의 길흉을
점지하는 사람을 풍수사, 지
사, 지관이라고 하였어요. 중
국에서는 지관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풍수가(風水家),
풍수라고 하였지요. 하늘과

땅의 이치에 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래 지관은 중국 고대의 관직명이었어요. 국가의 교육을 맡아
학교를 관리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해요. 또한
지관은 신의 이름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음력 7월
15일 사람이 1년 동안 행한 선과 악을 기록하여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한나라에 들어와서 풍수지리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풍수가가 나와서 당송시대에 와서 절정에 달하였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말의 도선을 가장 대표적인 풍수사로 꼽고 있어요. 도선은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왕건의 출생을 도와 고려건국에 이바지한 공이 컸지요. 그로 인하여 고려에서는 서운관(書雲觀)이라는 곳에 지리학교수를 두어서 국가의 궁궐을 지을 때나, 왕들의 묘 선정을 주관하게 하였다고 해요.

조선시대에는 10가지 학문 중의 다섯 번째로 음양풍수학을 설치하여 지관을 선발하는 잡과(雜科)를 보았다고 해요. 그러나 지관은 요즘말로 말하면 정규직이 아니고, 왕릉을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임명되는 임시직이었어요. 그러니 보수는 일정하지 않았지요.

임용은 전국의 풍수사 중에서 가장 우수한 3, 4명만을 선출했



으므로, 한번 지관에 임명된 사람은 풍수적 기술이 전국의 풍수사 중에서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실력이 되었어요. 또한 한번 어떤 관직에 임하면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대로 관직명을 불렀기 때문에, 한번 지관에 임용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지관으로써 예우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풍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문을 필수로 읽을 수 있어야 했지요. 그래야만 풍수서적을 많이 배우고 난 뒤에 선배 풍수사를 따라다니며 전국의 모든 산을 돌아다니 이론과 실재가 부합되는지 깨달아야 비로소 한 사람의 풍수사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적어도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10여 년의 세월을 지나야만 했어요.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만 했지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이와 같이 풍수사는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수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풍수사는 아무나 되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한문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었지요. 때문에 글을 못 읽는 평민에서 풍수사가 나올 리가 없었고, 적어도 중인



(中人) 이상이 아니면 풍수사가 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풍수사의 지위는 '점복술'을 업으로 하는 맹인, 무녀 등과는 달리 높은 대우를 받았던 것이죠. 그렇게 때문에 풍수사들은 대부분 지관으로서 깨끗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돈보다는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도선은 신라 말 덕흥왕 2년에 지금의 전라남도 영암군 월출산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태어나고 자란 전라도 해안지방은 당나라와 교역이 활발했던 곳으로 당의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교역의 요충지였지요. 당시 당에서 유행하던 풍수지리설도 다른 지방보다 빨리 이 지방에 전래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도선이 자라면서 풍수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도선은 15세에 지리산 화엄사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고, 불경을 공부하여 4년 만에 큰 뜻에 통달하여 하늘이 내린 승려로 존경을

받았어요. 당시의 승려들은 가르침을 베푼 스님의 인가를 받으면 그 스님을 떠나서 혼자서 전국 각지의 명산 대첩을 떠돌아다니며 수련을 하였어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산하에 대해서 많은걸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지리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풍수사들이 대부분 스님이었던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어요.

풍수지리에 통달한 도선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반도 산천의 좋고 나쁨을 그려서 작성하였어요. 이것은 산수의 형세에 따라 명당을 설정하고 그 곳을 중심으로 작성한 일종의 지도였지요.

신라 말기 혼란기에 지방호족들은 대부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명당으로 내세워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세력 확장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이렇듯 전국이 혼란스러우니 나라는 날로 기울어 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도선은 전국을 답사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결함이 있는 땅은 사찰을 세우거나 탐을 세워 보완 해 주었지요. 도선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도선이 백두산에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송악 근처를 지날 때였어요. 왕건의 아버지가 새로 집을 짓는 것을 보고는 도선이 한마디 했어요.

“느릅나무를 심을 땅에 왜 삼베를 심었을까?”

왕건의 아버지는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아보고는 도선을 극진히 대접하고 자문을 구하였어요. 도선은 뒷산에 올라가 산의 모양을 유심히 살펴보고 하늘과 땅의 형세를 곰곰이 바라보고는 말하였지요.

“송악산의 맥은 멀리에 있는 백두산에서 출발하여 뺨어내려 와서 이곳으로 떨어져 명당을 일으킨 곳ियो. 그대는 물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집 근처의 흐르는 물의 숫자를 따라 집을 서른여섯 칸으로 만들고 송악산이 험한 바위로 되어 있으니 소나무를 심어 암석이 보이지 않게 하면 하늘과 땅이 부응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신성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왕건이라고 짓는 것이 좋겠소.”

도선의 말처럼 1년 후 왕건이 태어났으며, 그는 점차 성장하여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워 태조가 되었던 것이에요.

도선은 왕건과 밀접한 관계로 도선이 왕건을 도와 고려를 건국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왕건은 서기 918년에 태어나 943년에 죽었기 때문에 도선하고는 시대가 맞지 않아요.

이는 도선이 명당을 점지해주어 그 힘으로 고려가 삼한 통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필연성을 내세워 고려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도선이 불교에 입문하였을 때는 신라 귀족 중심의 불교인 교종(敎宗)이 쇠퇴하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각 개인이 스스로 사색하여 진리를 깨닫는다는 선종(禪宗)이 보급되고 있는 시기였어요.

선종은 대부분 당나라에 유학한 승려들에 의해서 유입되었는데 그들은 선종을 일반 대중에게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풍수지리를 이용하였지요.

도선은 한반도 전역을 답사하면서 경험을 통하여 한반도 산천의 형세를 파악했어요. 즉, 단순히 풍수지리 이론의 적용이 아닌 국토 공간에 결함이 있는 곳을 보완해주기 위해 인공적으로 산을





만들고 제방을 쌓고 사탑을 세워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면서 독특한 한국의 풍수사상을 정립했어요.

그의 풍수지리 사상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가치관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그에게 상을 내리고 비를 만들어 주곤 했어요. 이런 도선이 대궐면 거물 대리를 지날 때의 일이었어요. 도선은 엄나무 고목 숲을 한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무릇 선비가 조정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산림에 묻혀 지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터로 정할 언덕 하나, 집을 지을 몇 개의 서까래가 없다면 어떻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집안을 편안히 할 수 있겠는가? 집터를 정하고 집을 지을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터 잡기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

집의 왼쪽에 흐르는 물을 청룡이라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긴 길을 백호라 한다. 집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 이를 주작이라 부르며, 집 뒤에 언덕이 있으면 이를 현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된 곳이 최고로 귀한 땅이다.



하지만 만약에 집 왼쪽에 흐르는 물이, 오른쪽에 긴 길이, 앞에는 웅덩이가, 그리고 뒤에는 언덕이 없을 때에는 동쪽에는 복숭아나무와 버드나무를, 남쪽에는 매화나무와 대추나무를, 서쪽에는 치자나무와 느릅나무를, 북쪽에는 능금나무와 살구나무를 심어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동쪽에 버드나무를 심으면 말의 수가 불어나고, 서쪽에 대추나무를 심으면 소의 수가 늘며, 중문에 해나무가 있으면 부귀가 3대에 걸쳐지며, 집 뒤에 느릅나무가 있으면 백가지 귀신들이 감히 근접을 못 하느니라”

그리고는 나무그늘에 첩퍼덕 자리를 잡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집 주변에 대나무나 푸른 부평초가 있으면 재산이 늘고, 대문 앞에 두 그루의 대추나무, 집 앞에 석류 한 그루는 아주 길할 것이니라. 하지만 가운데 살구나무가 있거나, 서쪽에 버드나무가 있으면 흉가가 된다. 또한 큰 나무가 집 처마에 닿으면 질병이 끊이지 않기에 큰 나무를 처마 근처에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



마당 한가운데 나무를 심으면 재산이 흩어지며, 재앙이 발생한다. 여러 종류의 파초를 집안에 심으면 귀신이 들끓을 수 있으며, 우물가에 복숭아나무를 심어서도 아니 된다. 또한 대문밖에 수양버들은 좋은 것이 아니며, 큰 나무가 대문에 닿으면 염병에 걸린다. 내 저 엄나무 숲을 보아하니 저 곳에 집을 짓고 살면 9대 독자에 12대를 부유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옷을 툭툭 털고는 다시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곁에서 이 말을 유심히 들은 동네 사람 한 명이 그 엄나무 터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후손들 8가구 정도가 살고 있으며, 아직까지 엄나무 한 그루가 고목으로 남아 있어 도의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온가족이 함께 읽는

김포의 옛이야기

11

천등교개

천등고개

서울에서 48번 국도를 따라 내려오다 서울과 김포의 경계를 막
지나면 조선조에 서해와 서울을 뺏길로 이르려고 운하공사를 하
다 중단된 역사를 간직한 굴포천이 있고, 그 위에 판개 다리(판개
는 '굴포[掘浦]의 고유어, '평교다리'는 와전)가 있어요. 계속해
서 김포 쪽으로 1.5km 남짓 달리면 고촌면사무소 소재지인 신곡
리 마을에 다다르지요. 이 신곡리를 지나 김포시내로 오려면 반
드시 넘어야 하는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가 바로 '천등고개'였
어요. 이 천등고개에는 짧은 전설이 있어요.

옛날의 천등고개는 현재의 신곡리와 장곡부락을 잇는 고갯길이
아니라 신곡리 마을과 천등마을을 잇는 매우 긴 고갯길로, 천등



고개를 넘으면 또 한 고개가 있어서 덧붙은 고개를 '덧고개'라 불렀어요.

그런데 이 고개 주변의 산은 그리 험하거나 높지는 않지만 아름다워 수목들로 꽉 찼었고, 그 산 속에는 산적들이 우글거렸기 때문에 주민들은 대낮에도 마음 놓고 고개를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 때문에 신곡리나 천등마을 사람들이 상대편 마을을 방문하려면 사람 천 명이 모여야 산적들의 피해 없이 안심하고 고개를 넘을 수 있었다하여 사람들이 천등고개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천등고개는 '천 명이 모여서 오르는 고개'로 원래 '千登(천등)고개'였을 것이나, 오늘날에는 '天登(천등)'으로 표기되고 있어요.

또 다른 설화에 의하면 조선조 말에 강화도령이 임금(철종)에 오르려고 상경하던 길에 행차가 늦는다고 호령하는 소리가 천등소리 같았다 하여 '천등고개'라 했다고도 해요.

“무엄하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시다. 게으름 피지 말고 어서 가자꾸나.”



가슴에 억눌린 한이 서려 있는 외침이었지요. 갑자기 얻은 권력에 허세를 부리는 소리이기도 하였어요.

지금 고개에서 산이 떠나가라 외치는 이 남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조선 25대왕 철종, 33세로 단명한 이원범이에요. 당시의 상황은 이러했어요.

1835년, 조선 24대 국왕 헌종이 왕을 이을 자식 없이 갑자기 죽어 버리자 왕실과 조정이 발각 뒤집혔어요. 후사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적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때 왕실의 어른이자 종실의 제일 웃어른이신 대왕대비가 기회를 놓칠 리 없었지요. 대왕대비 순원왕후 김씨는 김조신의 딸로서 조선조 말 세도정치 의 아성을 구축한 안동 김씨였어요.

순원왕후를 중심으로 하는 안동김씨와 순조의 장남 효명세자(익종)비 신정왕후를 축으로 하는 풍양 조씨는 어느 쪽에서 먼저 왕을 내느냐 하는 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이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영광과 몰락이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신하라는 이름으로 조정의 권력을 틀어쥔



풍양 조씨와 안동 김씨는 때로는 협조하는 동반자로, 때로는 각을 세워 대립하는 맞수로서 조정의 권력을 양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순원왕후가 증친부를 꺼내놓고 이리저리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치며 외쳤지요.

“그래, 바로 이놈이야. 호호호. 정조대왕의 아우인 은언군의 손자 놈인 원범이가 있었구나. 이놈이 바로 제격이구나.”

대왕대비는 지체 없이 원범을 택했어요. 직계혈통에 마땅한 사람도 없었지만 정치적인 배경이 있거나 좋은 왕이 될 여지가 있는 똑똑한 사람보다도 강화도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사꾼 원범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적임자였어요. 또한 풍양 조씨에게 선수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촌각을 지체해서는 아니 되었어요.

대왕대비의 명령이 떨어졌고, 종묘사직을 이어갈 왕으로 원범이를 택한다는 교지였어요. 이게 바로 택군(擇君)이에요. 택군이란 왕을 선택한다는 의미지요. 조선 왕실 사에서 이처럼 슬픈 일은 없었어요. 임금이 신하를 임명하고 면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왕을 선택하다니 기가 막힐 일이었지요.



비록 대왕대비의 명을 거치는 행위를 거쳤지만, 신하가 임금을 선택한다는 것은 권위를 기반으로 군림해야 하는 왕실로서는 몰락으로 가는 막차를 타는 것이었어요.

사도세자의 증손자이자 정조의 아우인 은언군의 손자가 이원범이었는데, 당시 영조의 혈손으로는 헌종과 원범 두 사람 뿐이었어요. 1849년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영의정 정원용의 건의와 순원왕후의 명으로 강화도에서 농사꾼으로 살고 있는 이원범을



테려와 조선 25대왕 철종으로 앉힌 것이지요.

이원범은 형 화평군의 옥사로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유배되어 살다보니 자연히 학문과는 거리가 먼 농사꾼이 되어 있었어요.

당시 19세였으며 이렇게 살던 원범이 갑자기 환경이 변하여 왕이 되고 보니 정치는 안동 김씨인 대왕대비가 간섭을 하게 되고, 1851년에는 안동 김씨 김문근의 딸을 왕비로 맞았어요. 이때부터 정치의 실권은 안동 김씨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으며, 문란한 정치로 탐관오리가 판치며 백성들의 생활은 나날이 어려워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철종은 1863년 재위 14년 만에 33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어요.

그는 모두 8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자식들도 유난히 단명하여 아들과 딸 모두가 일찍 죽고 말았지요. 이렇듯 철종은 처절하리만치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갔어요.

그러나 이런 원범도 가슴 시린 첫 사랑이 있었어요.

원범은 천주교 박해에 희생으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홀로 19살까지 강화도에서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그때 위로를 해주고 삶



의 희망을 심어준 사람이 양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처자였어요. 이들은 강화읍 내수골 원범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찬우물에서 사랑을 확인하곤 했었지요.

그러나 나뭇꾼 강화도령과 양순이는 못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헤어져야만 했어요.

“내일이면 나는 여길 떠나야만 한다. 정말 가기 싫지만 몰락한 가문의 대를 이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한다. 다시는 나를 못 볼 것이야.”

양순이와의 추억이 서린 찬우물가에서 일반인으로서의 마지막



작별의 순간이었지요.

임금으로 등극한 강화도령은 찬우물 사랑을 잊지 못해 '강화도가 좋았다'는 말을 틈만 있으면 했다고 전하며, 양순이는 임금 되신 도령과의 사랑을 정절로 지키며 홀로 일생을 살았다고 해요.

찬우물은 언제부터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강화읍권을 비롯하여 서울에서까지 매주 물을 길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꼭지가 없으니 물을 잠글 수도 없고 일 년 내내 가뭄을 안타니 멈추는 법이 없어요. 그리 높지도 않은 산에서 어찌 그리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지 물을 마실 때마다 감탄을 한다고들 해요.

찬우물에서 고개 하나를 넘으면 선원면 냉정리 철종 의가가 있어요. 부모가 안 계신 떠꺼머리총각은 외가식구들과 의지하며 살았었어요. 임금으로 등극하자 외가댁 식구들을 보살피게 되는데 의가 5대에게 벼슬을 내리게 하고 선원면 냉정리에 전답 10여 정보를 하사 하는 등 특전을 베풀었다고 해요.

철종은 과연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삶이었을까요? 대부분의 후세인들은 차라리 농사꾼으로 살았으면 행복했



을 것이라 하지만 허수아비 왕일지라도 왕위에 올라 살다죽는 것을 바라는 인간적 욕심은 없었을까요? 세도정치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식량을 걱정해야 하는 백성들은 철종을 부러워했을 것이에요.

현재 천등고개는 성황당도 있는 꽤 높은 고개였으나, 현재는 김포~서울 간 도로 확장공사로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온가족이 함께 읽는

김포의 옛이야기

12

용허리길

용허리길

고려 말엽, 나라가 어수선할 때였어요.

고려는 불교를 장려하던 나라여서 곳곳에 사찰과 암자가 많이 생겨났지요. 하지만 나라가 기울어지면서 백성들의 생활은 궁핍해졌고, 사찰과 암자는 시주가 줄어들자 승려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얻어오는 먹을거리에 의지하여 절을 운영해야만 했어요. 이 작은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러나 이 마을은 비록 작지만 해마다 풍년이 들고 사람들도 부지런하여 겉보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부유한 마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마을 한가운데 열두 대문을 두고 하인도 많이 거느린 집이 하나 있었지요. 이 집이야말로 마을에서도 제일부자요 또 권세도 있는 집안이었어요. 이 집에는 지주영감과 외아들 단





두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외아들은 성장해서 장가를 가게 되었고, 아들을 장가보내고 얼마 안돼서 지주영감은 세상을 떠났고 말았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지주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지주 생전과 마찬가지로 객들의 왕래는 여전히 빈번했고 시주도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객들의 빈번한 왕래와 시주를 반기지 않았어요.

심한 흉년이 나던 어느 해였어요. 다른 해와는 다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중들이 와서 시주를 구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중들이 몰려와서 귀찮을 정도가 되었지요. 그래서 결국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는 얘기를 했어요.

“이보시게들! 내 말 좀 들어보게. 아무리 우리 마을이 비축한 곡식이 많고 풍족하다고 한들 이런 식으로 시주를 했다가는 우리 양식도 금방 바닥을 드러낼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 흉년이 언제까지 갈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겠나? 내 나리에게 말해 책임지고 자리를 마련할 터이니 같이 의논을 해보시게들.”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곤 지주의 아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주의 아들과 의논을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나리! 요즘 중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조금씩 주는 시주는 별로 아깝지 않으나 너무 많이 찾아오니 큰 걱정입니다. 어떤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가르쳐 주십사하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에게 아뢰었지요. 이에 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하



다가 말했어요.

“지금부터 시주 오는 중들을 모두 묶어서 광에다 가두고 몇 끼씩 굶기 거라. 배가 고프면 스스로 보내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당하다 보면 더 이상 시주를 구하려 오지 않을 것이야.”

부인은 제 뜻대로 일이 풀린 것을 보고는 너무 기뻐요.

그 다음날부터 시주 오는 중들이 모두 혼이 나서 달아나고 어떤 중은 광속에 며칠씩 갇히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여러 날을 굶겨서 산중으로 쫓아 버렸지요.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 몇 년 뒤, 어느 해 봄날이었어요.

도승 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주의 아들 집에 시주하러 왔다가 그만 광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누구 한사람 밥을 가져다주는 이가 없었지요. 도승은 하도 배가 고파서 밖을 내다보고 고향을 찾지요.

“아무도 안 계시오? 시주하러 온 나한테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란 말이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소? 이보시오. 문을 여시오.”

도승의 고향소리에 하인 한사람이 들여다보면서 말을 했어요.

“우리 나라께서 선심을 쓸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하인은 오히려 도승에게 호통을 쳤어요.

도승은 다시 밖을 보고는 소리쳤어요.

“아이고! 주인을 좀 만나게 해 주시오. 나는 주인을 도우려고 찾아온 사람ियो, 어서 주인을 만나게 해 주시오.”

이 말에 하인은 귀가 솔깃해져서 주인에게 달려가 그대로 고향 왔어요.

“나리! 지금 광 속에 갇힌 중이 자기는 나리를 도우려고 온 사람이라는데 만나보시겠습니까?”

아들은 도우러 왔다는 말에 내심 궁금해져 중을 만나기로 했어요.

광에서 풀려난 중은 아들을 보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강원도 금강산에서 도를 닦는 중인데, 이곳을 우연히 지나다 보니 이 마을이 앞으로 몇 년 후면 망할 것 같아서 알려 드리고자 찾아 왔는데 저를 이렇게 욕을 보이십니까? 다름이 아니옵고 저 건너편 산중턱에 바라보이는 저 바위를 용바위라 하



는데 그 용바위에 달려있는 용의 입과 같이 생긴 곳을 찢러 주면 이 마을이 옛날과 같이 풍년이 들고 잘 살 것입니다.”

아들은 중을 보고 말했어요.

“아 그러시오. 내 몰라 뵈어서 죄송하오. 진작 말을 했으면 이렇게 험한 대접은 안했을 텐데.”

도승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저 바위는 용이 하늘로 오르다가 바위로 변한 것인데 이 마을을 쳐다보고 있기에 저 바위를 저렇게 두면 그 재앙이 곧 마을로 돌아와 몇 년 후에는 이 마을이 망할 것입니다. 단 용의 입을 찢을 때는 사람들이 자는 한 밤중에 하셔야만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아들은 도승에게 후한 식사를 대접하고는 시주를 가득 해주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지주의 아내가 도승에게 살짝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말을 건넸어요.

“마을이 다시 풍년이 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집안에 다시 객이나 승려들이 붐비게 될 텐데 그걸 막을 수 있

는 비책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시는지요?”

도승은 속으로 며느리가 꽤 씩씩했으나 모른 채 하고는 말을 했어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지요. 내 일러 드릴 테니 그대로만 하시구려. 사람들이 전부 다 지는 한밤중에 일어나 마을 뒷산에 길을 만들면 방문객이 없어질 것입니다. 단 길 만드는 동안에 부인은 계속 빗으로 머리에 빗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인은 도승에게 거듭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그날 밤 아들은 한 밤중에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하인들을 불러 모았지요.

“여봐라!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에 일을 끝마쳐야 하느니라. 알아들겠느냐? 그리고 돌을 잘 다루는 석공을 함께 데리고 가거라.”

하인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에 산을 오르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넘어지고 구르고 깨지고, 하지만 결국은 용바위까지 이르렀지요. 하인은 석공에게 말을 했어요.



“자! 어서 저 용의 머리 형상을 한 바위를 썬시오. 빨리 끝내고 내려갑시다.”

석공과 하인은 용바위가 있는 곳으로 다가섰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달빛이 청명하던 날씨가 갑자기 구름이 모여들면서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석공은 겁이 나서 하인을 보고 말을 했지요.

“날이 갑자기 흐려져 비가오고 기분이 으스스한데 정말 괜찮겠소?”

“그러게 말이요. 기분이 이상하지만 나라가 시킨 일이라 나도 어쩔 수가 없소.”

한편, 그 시각 부인은 남편이 나간 것을 알고는 남아있던 하인들을 따로 불러 모았어요.

“자! 내 말을 잘 듣거라. 너희들은 지금부터 저 뒷산에 길을 내야 한다. 사람들이 깨기 전에 일을 마치려면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이야. 알아듣겠느냐? 그럼 시작하거라.”

하인들은 이 밤중에 산에 길을 만들라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

어요.

그래도 명령은 명령인지라 광에서 연장들을 꺼내선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부인은 도승의 말대로 머리를 풀어서는 참빗으로 빗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하인들이 길을 내며 땅을 팔 때마다 땅에서 빨간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었어요. 하인들은 놀라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아 있었지요.

한발, 두발 조심히 다가가는 석공은 지주가 시킨 일이라 겁은 나지만 하는 수 없이 정과 망치로 용의 머리를 '탁' 하고 찢었어요. 그 순간 '번쩍' 하며 순식간에 번개, 천둥이 치면서 하인과 석공은 벼락을 맞아 죽고 찢려진 용 바위 머리는 피를 흘리며 '쩍' 하는 소리와 함께 갈라졌어요.

한편 아들과 부인은 집에서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천둥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까 낮에 본 그 도승의 목소리였어요.

“너희들의 행실이 꽤 씹히여 하늘이 천벌을 내렸으니 너희 마음은 삼년 내에 망할 것이다.”





그 목소리는 말을 마치고는 이내 하늘로 사라졌어요. 그런 일이
있을 뒤부터는 이 마을은 계속 흉년이 들고 소, 돼지도 죽어나가
고, 그러다보니 한 집 두 집 망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이 마을
에 살던 사람은 한사람씩 그곳을 떠나 용의 머리가 보이지 않는
서쪽으로 이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인들이 산을 잘라 길을 만들고 있던 현장에는 붉은 피가 흘러
내렸다고 하는데, 이 피는 용의 허리를 잘랐기 때문에 거기서 나
온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용의 머리와 허리를 동시에 잘랐
기 때문에 용의 저주가 내려 마을이 망한 것이라는 얘기도 돌았
지요.

월곶면 군하3리 봉골 마을을 가로지르는 길이 있는데, 그때부
터 그 길을 '용허리길' 이라고 불렀어요. 또한 밤중에 여자가 머
리를 빗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여 밤중에 머리를 빗는 것이 금
기(禁忌)로 전해오고 있다고 하네요.





온가족이 함께 읽는

김포의 옛이야기

13

용바위

용바위

하성면 전류1리 동쪽으로 보면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어요. 바위들이 여기저기 솟은 산이지요. 이 산 중턱에 우뚝 솟은 바위 하나가 있는데, 그 바위의 모양이 마치 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용바위'라고 불러 왔지요.

옛날에는 용이 하늘로 오르는 형상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비바람에 깎여 지금은 그 형상만 겨우 남아 있어요. 이 바위에는 사람들과 용과의 얽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요.

“드디어 도착했군.”

인적이 드물고 울창한 수목으로 뒤덮인 깎아지른 암벽 사이에 있는 돌 동굴을 찾아온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멀고 먼 북쪽 땅에



서 영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붉은 도포를 입고 푸른 눈썹을 휘날리는 노인이 나타나서는 말하는 것이었어요.

“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 머나 먼 남쪽 땅에 이르러 동쪽 산맥의 정기가 서남 사이로 힘 있게 뻗치다가 멎은 곳에 푸른 이끼로 둘러싸인 수련의 동굴이 있으니 그 곳을 찾아가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로 몸을 정갈하게 씻고 7년간을 수행하면 온 천하에서 으뜸이 되는 장수가 되어 날개를 얻고 천하를 제패할 수가 있느니라.”

꿈에서 깬 그는 문득 어릴 적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나를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난 꼭 이 기회를 얻어 세상에 이름을 떨칠 장수가 될 것이야.”

그는 꿈에 나온 도사의 말을 따라 산수를 헤맨 지 5년, 드디어 겨우 꿈에 계시 받은 이끼 덮인 동굴을 찾기에 이르렀어요. “드디어 찾았어! 바로 여기야! 5년을 찾아 헤맨 보람이 있구나.”

청년은 크게 기뻐하며 돼지를 잡아 하늘에 제를 올리고 엎드려 절을 한 후에 몸을 깨끗이 씻고 동굴로 들어갔어요.

이빨싸! 하늘도 무심하시지!

동굴 물웅덩이에는 이미 먼저 온 용 한 마리가 도사리고 앉아 승천의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어요. 청년은 크게 놀라고 또한 실망한 나머지 동굴 밖에 나와 동굴 벽을 주먹으로 치며 분통을 터뜨렸어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기껏 고생한 것이 물거품이 되었구나. 부모님 뵈면 면목이 없구나.”

그러자 꿈에 본 도인이 나타났어요.

“수련의 동굴을 빼앗긴 것은 분한 노릇이나 아직도 희망은 남아 있으니 낙담하지 말거라.”

이렇게 위안한 뒤에 일러 주었어요.

“용이 승천하지 못하도록 문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용을 죽인다면 그 정기를 빼앗을 수 있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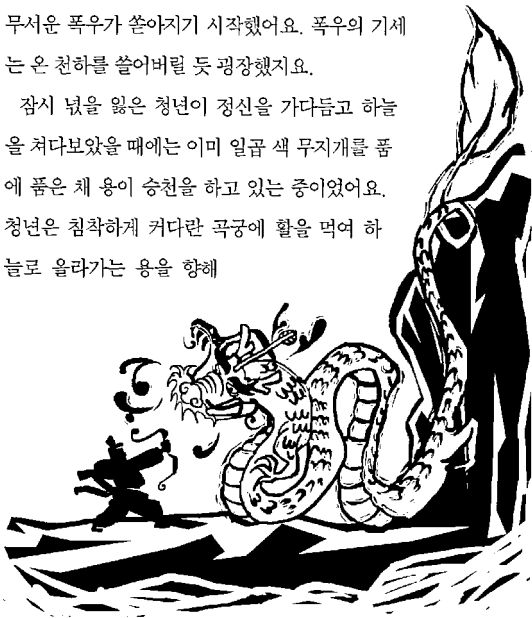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이때부터 동굴 밖에서 장검을 쥐고 용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런지 꼭 백 일째 되던 날 새벽, 갑자기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



리며 마른하늘에 번개와 천둥이 울리면서 별안간
무서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폭우의 기세
는 온 천하를 쓸어버릴 듯 굉장했지요.

잠시 났을 잃은 청년이 정신을 가다듬고 하늘
을 쳐다보았을 때에는 이미 일곱 색 무지개를 품
에 품은 채 용이 승천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청년은 침착하게 커다란 곡궁에 활을 먹여 하
늘로 올라가는 용을 향해



화살 한 발을 날렸어요.

‘텅! 휘잉!’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날아간 활은 그대로 용의 정수리에 박히고 또아리를 틀던 용은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 와중에 용은 마지막 사력을 모아 꼬리를 휘둘러 청년을 내리쳤어요.

청년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억울하게 승천을 못한 용도 한을 품고 죽어갔어요.

이 일이 벌어진 후 몇 백 년이 흘러 점점 기억 속에 파묻히고, 이곳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더니 어느새 마을을 이루어 살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승 한 분이 이 마을에 홀연히 나타나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이 집 저집을 다녀도 시주할 것이 없다는 소리만 들을 뿐이었지요.

“참 인심도 야박한 마을이로구나! 사람들이 저리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시주할 것이 없다니.”



그때였어요. 한 할머니가 시주를 하기에 노승은 칭송하고 합장을 하고 있었지요.

“적선공덕으로 왕생극락 하십시오”

이 때 이 모습을 유심히 보던 마을 촌장이 다가와 노승에게 물었어요.

“다른 집에서도 적선을 했습니까?”

“이 댁에서 처음입니다”

촌장은 안타깝고 걱정스런 눈빛으로 먼 하늘을 보며 말을 꺼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마을사람들은 아주 부지런하고 검소하지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나 이상하게도 수확이 잘 안 되고 모든 곡식은 말라죽기 십상이고 과일들은 썩어가고 가축들은 북하면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 죽기 십상이구려. 시주할 양식조차 없답니다.”

노승이 촌장에게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촌장은 연유를 알 수 없다고 한탄을 했어요.

이에 노승은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무릎을 치며 말했
어요.

“옳거니, 소승 미천하나마 풍수지리에 관해 약간은 아는 바가
있어 산에 올라 마을의 지형을 한번 살펴봐야겠소.”

그리고 노승은 촌장과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곤 동
네 주위를 유심히 살핀 후에 무언가를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
였어요.

“흠, 촌장님 다시 앞산으로 가서 한 번 봐야겠소.”

그리곤 앞산에 올라 보니 마을을 향해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용
의 형상을 한 바위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 저주받은 용의 형상이 마을의 양식을 먹어 치우는 형세이므
로 마을이 가난한 것이요. 하늘로 승천하려던 용이 그 뜻을 이루
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 한이 오죽하리오. 마을이 잘 살려면 저 거
대한 용바위를 부숴야만 한다오.”

노승은 촌장에게 이렇게 말하고 홀연히 떠나갔어요. 산에서 내
려온 촌장은 마을회의를 열었어요.



“우리 마을이 잘 살려면 저 산위에 있는 용의 형상을 한 바위를 부셔야만 합니다. 자 내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서 바위를 깨뜨립시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망치며 곡괭이며 쟁기를 들고 용바위를 깨뜨리러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위를 내리쳐도 꿈쩍도 하질 않는 것이예요. 심지어 내리치던 곡괭이가 부러져버리고 말았지요.

“이 바위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요. 그러면 할 수 없소. 모두가 정갈하게 목욕재계하고 매일 옥황상제께 치성을 드려 도움을 청해 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꼬박 100일 밤낮을 치성을 드렸어요. 그만큼 간절한 일이었지요.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던 옥황상제는 신하에게 명을 내렸어요.

“저토록 나에게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오도록 하라.”

“몇 백 년 전 하늘로 올라오려던 이무기가 변신한 용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바위로 변해 그 지역에 저주를 내린 듯하옵니다.”

신하의 보고를 받은 옥황상제는 다시 명을 내렸어요.

“여봐라! 하늘의 대장간을 담당하는 신을 불러 처리하도록 하라.”

대장간을 담당하는 신은 하늘의 쇠를 녹여 만든 무쇠망치를 가지고 구름을 타고 용바위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어요. 대장장이 신은 무쇠 망치를 공중에 한번 휘두르더니 땅을 향해 있는 힘껏 내리쳤어요. 그러자 무쇠망치가 파지직 소리를 내며 붉게 변하더니 번개가 일어나며 망치 주위를 빙빙 돌아갔어요.

“망치가 이제 힘을 받았군. 자! 이제 시작해볼까.”

“아라차차!”

기합과 함께 용머리는 망치 한 방에 우수수 부서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나는 엄청난 소리에 무서워 집 안에서 떨고만 있었지요. 일을 마친 대장장이의 신은 하늘로 올라갔고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바위가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들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늘에 감사의





제를 드렸지요. 그 이후로 마을엔 더 이상 나쁜 일은 안 일어나고
부지런히 일한 만큼의 수확을 거두며 아주 부유한 마을로 점점
변해갔다고 합니다.





온가족이 함께 읽는

김포의 옛이야기

14

오뎅난 돌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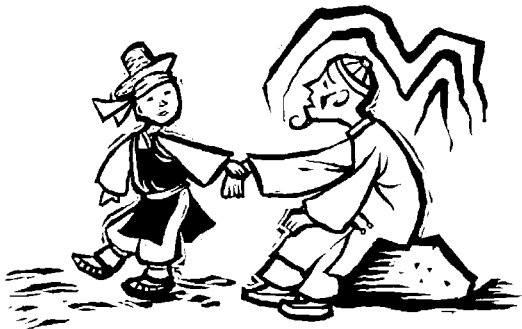
오봉산 돌우물

대곶면 석정리는 조선시대까지 통진현 고리곶면 읍정리였다고 해요.

이 곳 '돌우물'의 물맛이 좋아 통진현의 원님이 우물의 물을 길어오게 하여 식수로 사용하였는데, 고을의 우물 곧, '골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라고 하다 보니 그 이름이 전해져 주민들은 습관적으로 '골우물'로 불리웠어요.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민족정기와 역사적 의의를 말살하기 위해 단순히 의미만을 옮긴 '석정(石井)'으로 고쳤다고 해요.

이 우물은 전체가 돌로 되어 있는데 동남간과 동북간에 거북 형상과 용의 형상이 있고, 샘은 오봉산 동북쪽에서 솟는데 수량이 엄청나서 옛날에는 이 근방 못자리를 모두 꾸려나갔다고 해요.





오봉산에서 숯은 이 돌우물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오래전 어느 날, 중국에서 어떤 남자가 무슨 계기로 그만 죄를
얻게 되어 그것도 역적이라는 죄명을 쓰고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조선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어요.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
여 도망하여 온 터라 가진 것도 없고 하여 별로 먹지도 못하고 제

대로 입지도 못하여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이곳까지 와서 마을의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그 초라한 초립동이 차림의 중국 사람은 김씨라는 사람의 곁에 앉아 있게 되었어요. 김씨는 그를 보더니 딱하게 여기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음식도 주고 옷도 새로 마련하여 주면서 며칠 쉬다가 가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마침 그 때 할머니가 병이 깊어서 매우 위독한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이에 그 중국 사람은 할머니의 병환을 살펴더니 도저히 소생할 가망이 없음을 판단하고 김씨에게 말을 건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이지만 노부인의 병환은 아무래도 회춘하 시기가 어려운 고비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타국에 와 얼굴도 모르는 당신을 만나 저는 겨우 고생을 벗어나 이제 몸도 다 회복하였 습니다. 당신께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였 으나 다만 내 나라에서 약간 배운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저 노부 인을 모실 산소 자리라도 하나 보아 추천하겠습니다.”



김씨는 이 중국인의 말이 하도 고마워 함께 묘 자리를 보러 나갔어요. 저 앞에 바라다 보이는 오봉산을 건너다보고는 함께 그리로 가자하였어요. 중국인의 뒤를 따라 오봉산에 이르러 그 뒤편으로 돌아 어느 집 한 채가 있는 곳까지 가서는 이 집터가 묘자리라고 일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판이 들어설 자리까지 지정하여 주는데 그 자리란 것이 바로 그 집의 장독대가 있는 곳이었어요.

김씨는 딱하였지요. 아무리 자기 노모님을 모실 자리로서 명당을 추천받았다 하지만 어엿이 살림을 차리고 있는 집에 들어가 그 집터를 묘 자리로 양보해 달라고 하기는 어려웠지요. 여러 시간을 끙끙거리다가 큰마음을 먹고 그 집에 들어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찾아온 뜻을 말하였어요.

처음부터 승낙을 받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으나 역시 예상대로 난리가 났지요. 집 주인은 화가 날 때로 나 결국 김씨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는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김씨가 그 집터에서 돌아온 그날 밤에, 그러니까 집터를 묘 자리로 양보해 달라고 말을 건넸다가 혼썰이 나서 돌아온 날 밤이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오봉산 뒤, 그 집이 불이 나서 몽땅 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김씨네 노부인도 그 시각에 운명하고 말았지요.

마을에서는 이야기 거리가 생겼어요. 멀쩡히 집짓고 사는 이에 게 묘 자리 내어 달라고 한 것도 이야기 거리인데 거절하였더니 그날 밤 이상하게도 원인 모를 불이 나 집 한 채를 몽땅 태웠지요. 그뿐 아니라 김씨 닥 노부인이 또한 시간을 맞추어 운명하셨으니 더욱 그리했지요.

따라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김씨네에서 그 집터를 묘 자리로 하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 혹은 불이 난 것은 그 집터가 김씨네 노부인 묘 자리로 이미 하늘이 정해 준 것이어서 그렇다. 하필이면 불이 난 밤에 노부인이 죽을 것이 무엇이나? 그것으로도 하늘이 정하여준 것이다. 등등 말은 꼬리를 물고 이어나갔어요.

어찌됐건 묘 자리를 위한 이야기가 양가 사이에서 시작되었고



결국은 원만한 합의를 얻어 그 타버린 집터에 김씨는 묘를 쓰게 되었어요. 장사를 치르기 전날 중국인은 다시 김씨에게 말했어요.

“이제 노부인을 모실 자리도 확정되었으니 저로서도 그 간의 은혜는 보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노부인을 모시기 위하여 땅을 파서 관의 자리를 만들 때 얼마만큼 파내려 가면 평퍼짐한 돌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파지 마십시오.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옷을 가다듬어 입고는 떠난다는 인사를 하였어요.

“이제 저는 중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보아하니 죄명이 누명으로 밝혀져 역적의 이름이 깨끗이 씻겼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거듭 부탁드리겠는데 관 자리에 평퍼짐한 돌이 나타나거든 그 이상 더 파내려가지 마시고 그 돌 위에다 그냥 관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는 훌쩍 길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드디어 장례



날이 되었어요. 음식을 만들고 상여를 모시고 온 집안이 떠들썩
하었어요. 묘 자리까지 상여를 모시러 가 관 자리가 다 되기를 가
다리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
작하었어요. 관 자리를 파는 주위에서 꾸부리고 보고 있던 상여
꾼들도 한 몫 거들고 있었어요.

“더 파야지. 너무 얕지 않아?”

“아냐, 그만 파라고 했거든. 여기 좀 봐봐. 넓직한 돌이 있잖
아?”

“그렇지만 관 자리가 이리 얕아서야 원.”

“상관없어. 더 파지 마.”

“이럴 것이 아니라 상주에게 직접 보이고 결정하세.”

결국은 상주인 김씨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결정을 기
다렸어요. 김씨는 이야기를 듣더니 직접 가 보았어요. 분명히 중
국인이 말한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관 자리가 너무 얕아 보였어
요. 그도 혼자 결정하기에 망설여졌지요. 그래서 일단 작업을 중
단시키고 급히 가족회의를 열기 위해서 산소 가까이에 대기 중인



상여 앞으로 가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어요.

이때 관 자리를 파던 일꾼들도 한 동안 쉬기 위해 그곳으로부터 멀리 떠나 나무그늘 밑으로 갔고 다만 김씨네 막내아우만이 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원래 관 자리를 파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곳을 지키고 있게 마련이에요. 혼자 관 자리를 지키고 있던 막내는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평퍼짐한 돌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파놓은 자리 안으로 들어가 그 평퍼짐한 돌 위에 올라서 봤어요.

그런데 밑에 무슨 돌이 있는지 돌이 기우뚱하는 것이었어요. 무심코 그는 그 돌 한쪽 끝을 들어 올려보았어요. 그리고 그 밑을 내려다보았어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그 평퍼짐한 흙사 구들장 같은 돌을 들어 올리면서 내려다보는 순간 그는 '억' 하면서 다시 돌을 놓아버렸어요.

그 순간 무엇인가가 '우드득'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그 넓직한 돌은 제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막내는 놀란 가슴을 어루만지며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그리



곤 그 돌 아래 펼쳐졌던 광경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그 돌 밑에는 돌로 된 옥동자 다섯 개가 있었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보다 조금 더 큰 옥동자 하나가 서 있었어요. 마치 옥동자 다섯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큰 옥동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섬뜩하여 돌을 놓아버렸던 것이예요. 막내는 너무 놀라 쳐들었던 돌을 놓는 순간 무언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를 생각하고는 그 돌 위에서 이곳 저 곳을 밝아 보았어요. 그런데 돌을 쳐들기 전까지 기우뚱거리던 그 넓

적한 돌이 이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이가 꼭 맞은 듯
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제야 아까 무엇인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는 바로 다섯 개 옥동
자 앞에서 있던 큰 옥동자의 머리가 부러진 것으로 여겨졌고 그
머리가 부러지기 전에 그 넓은 돌이 그 키에 걸려서 기우뚱거렸
을 것임이 분명하였어요.

결국 김씨네 가족들은 관 자리의 돌을 제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를 의논하였으나 끝내는 중국인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그냥 돌
위에 관을 놓기로 하고 묘를 만들었어요.

산소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도 막내는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워 아
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돌 밑에 상황에 대한 일은 막내
만이 알고 그냥 지켜져 온 것이예요.

한편, 중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자기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게 되
었으니, 갓은 고생을 겨우 끝내고 집에 돌아 온 아들에게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예요.

“보아하니 너는 너의 목숨을 아껴주고 구해준 조선 땅의 김씨댁

을 은혜는 못 갚을지언정 역적의 집안으로 인도하였으니 그럴 수가 있느냐? 당장 되돌아가서 그 산소를 옮기도록 하여라.”

아들이 그 까닭을 물었어요.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선 땅에서 가장 좋은 명당으로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말을 하였어요.

“너는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 그 자리는 5정승을 거느리고 역적모의를 하는 또 하나의 옥동자가 있었느니라. 그가 바로 그 집안을 역적의 집안으로 만들 후손이니라.”

아들은 새삼 자기 아버지의 능력에 탄복을 하고 그 길로 다시 조선으로 건너와 김씨택을 찾았어요. 뜻하지 않게 중국인을 다시 만난 김씨네에서는 이만지만 반가운 것이 아니었지요. 중국인은 들어서자마자 자기가 잡아준 산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제의하면서 서들렸어요.

그때 김씨의 막내도 한자리에 있었어요. 이제는 더 숨겨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제야 집안 식구와 중국인 앞에서 장례식



날 판 자리에서 겪은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하였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중국인은 그제야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어요.

“그럼 되었고 그 부러진 것이 바로 다섯 개의 옥동자 앞에서 있던 옥동자의 목이 틀림없소. 그렇다면 이제 역적은 사라졌고 그 대신 정승이, 그것도 6정승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넓적한 돌은 땅의 나쁜 기운을 쫓던 거북의 등이 변한 것이니 이제부터는 묘 자리 멀지 않은 곳에서 샘이 솟을 것이고 수량이 풍부해 이 고을은 물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심한 듯 웃으며 집으로 갔어요.

그 후에 정말로 김씨 집안에서는 6정승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이일이 있던 다음에 오봉산에 있는 샘에서는 많은 물이 솟구쳐 현재도 김포에서 유례가 없는 영천(靈泉)으로 알려져 전국 각지에서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많이 찾고 있어요.

바람아 불어라 예루화 구름아 일어라
순풍에 돛달고 예루화 뱃놀이 가자



에헤야 에헤야 영산홍록의 봄바람
 오봉산 꼭대기 에루화 들배나무는
 가지가지 꺾어도 에루화 모양만 나누나
 에헤야 어헤야 영산홍록의 봄바람
 여울에 흐르는 돌 에루화 부디꺼켜 회고요
 이내몸 시달여 에루화 백발이 되누나
 에헤야 어헤야 영산홍록의 봄바람
 바람아 봄바람아 에루화 불지를 말어라
 머리단장 곱게한 것 에루화 모두 다 풀리누나
 에헤야 어헤야 영산홍록의 봄바람

그 이후로 1991년 중추절에 마을주민들이 정성을 모아 적연와,
 특수강으로 담을 두르고 주변을 정화(淨化)하여 전설과 함께 자
 랑스럽게 보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포의 지명유래 |

역사 상 삼국시대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으며, 김포 지역은 백제의 영토였으나 장수왕 63년(서기 475년)에 3만 군사로 친정(親征)하여 백제의 개로왕을 죽이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된 이후 김포 일대를 비롯한 한강 하구 지역은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이때 비로소 김포 일대가 역사의 기록에 등장하게 되는데, 삼국사기 지리지 편에는 현재의 김포시 일부와 검단면 지역이 검포현(黔浦縣)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서는 김포현은 본디 고구려의 검포현인데 경덕왕이 고친 이름으로 지금도 그대로 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김포 지역은 신라의 국운이 쇠퇴하여 후삼국이 정립하고 있을 때는 잠시 궁예(弓裔)의 수중에 있기도 했다. 고종 원년(1864년) 김정호가 쓴 대동지지(大東地志) 김포군 전고(典故)편에는 신라 진성왕 11년(897년) 궁예가 검포를 격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검포현의 검(黔)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검다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음이 검이고 신명(神名)의 뜻일 때는 '금'이 되고, 감과 통하는 글자로 신(神) 또는 존장(尊長), 왕(王)의 의미를 가진다. 감의 음운변화는 '금, 감, 검' 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포(浦)자는 해안지대의 지명에 사용되어 온 일반명사 또는 지명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글자라고 하겠다. 검포현은 존장 또는 부족장(제사장)이 다스리는 고을이란 의미가 된다. 김(金)의 고음도 금이며, 김포라는 지명도 '금포'라는 음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영조 때 한치윤이 쓴 '해동역사'에서는 '금을 소이'라는 두 음절로 기록하고 있는데(東俗金謂之蘇伊) 여기서는 소생할 소(蘇)를 쓰고 있어 정조 13년인 1789년의 '호

구총수'에서 소(所)자를 쓰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지만 이들 한자는 취음(取音)한 것이기 때문에 뜻과 관계없이 '소'라는 음만 가지면 되며, 이(伊)는 고대의 표기방법에서 모음 '이'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다.

金浦(금포)는 所伊浦(소이포)로 우리말로 쓰면 '소+이+개'를 표현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쇠'를 '소이'처럼 두개의 모음으로 발음하던 시대이어서 '쇠'로 발음이 변하는 과도기인 18세기 후반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기가 고안된 것이다. 소이개(金浦)에서 '개'는 모음 사이에서 '에'로 발음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베고개'는 '베오개'로 '학고개'는 '하오개'이므로 '소이에'가 된 뒤에는 모음 셋이 충돌하므로 이것을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소야'로 발음하게 되었다. 1895년(고종 32년) 학부 편집국에서 간행한 지리서인 '조선지지'에서는 김포를 '소야'라는 고유지명으로 표기하고 있다.

金浦(金浦)란 지명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며 하나는 '쇠가 나는 마을'이고 다른 하나는 근계의 어취 중 하나로 신앙과 관계되는 신(神)의 뜻이다. 예전부터 김포는 한강물이 밀려오는 강변마을로 수재로부터 무사 안녕을 기원하고 농사의 풍요를 비는 고대 토속신앙이 일찍부터 발달되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신앙과 관계되는 의미로 추정되는 것이다.

김포라는 명칭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어왔다. 장수왕 63년 서기 457년에는 검포현이었으며, 신라 경덕왕 16년인 757년에는 김포현으로, 고려시대인 공양왕 3년인 1391년에도 김포현으로 존치되고 있었으며, 인조 10년인 1632년에는 김포군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으며,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는 '김포군이 확대개편'되었다. 이러한 세월의 변화 속에서 김포라는 명칭은 역사적 변천 과정을 겪으며 현재는 김포(金浦)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다.

온가족이 함께 읽는

김포의 옛이야기

발행처 | 김포문화원

발행인 | 조한승

편집인 | 신승철

기획·진행 | 나루코(주) www.naruko.net

편집기획·구성·자료수집 | 윤재호, 황의웅

글 | 김순기

그림 | 이기영

캐릭터처 | 황의웅

표지·편집디자인 | 서정훈

인쇄 및 제본 | 청아문화사

감수 | 유영근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김포문화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증	정
발	행
SEP 2 - 2006	
김	포문화원



김포시는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타 시·도에서 이주해 오는 인구들이 증가하면서 김포시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 등이 사라져가고 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도 한국의 전래동화나 세계의 명작동화 등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토색이 짙은 김포의 설화나 전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김포의 설화와 전설을 동화화 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그와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교육적인 효과도 높였다.

- 머리말 에서

